

'창'은 우리 겨레와 인류
문화를 보는 눈입니다

窓

창

2023 | 가을 vol.62



07.21,
김형섭
가야금 산조

08.25,
양신승
관소리 고법

09.22,
서영호
아쟁 산조

10.27,
이난초
관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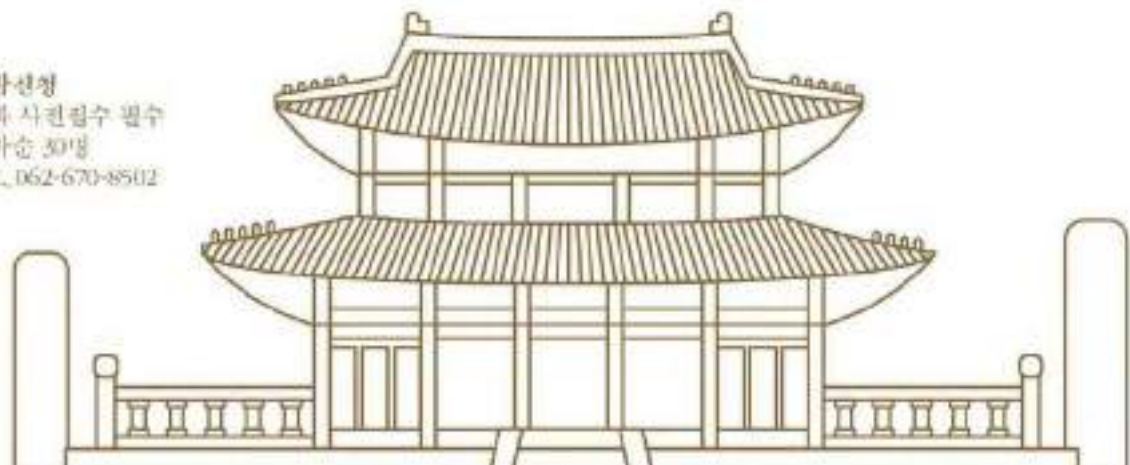
11.24,
김상연
대금 산조

12.15,
박미정
관소리

2023.07. - 12. 15:00 전통문화관 서석당
참되고 질고
깊은 우리소리



관람신청
권과 사진필수 필수
신청순 30명
TEL. 062-670-8502



경주광역시
진동문화관



김윤덕 가족(김유나 김레나), 「다시 민주주의로!」, 70×100cm, 천에 아크릴, 2023
질은 어둠의 손길 속에서도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가 펼쳐지는 광주를 표현했다.
지난 6월 10일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 주최한 '2023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한다'
'인문예술축제 프로그램 중 '오월정신 릴레이드로잉'에 참여한 시민작가(가족)의
작품이다.

2		'창'을 열며 지역문화의 소멸과 생존	오형근	
3	특집 기획	특집기획_ 오월! 현주소, 그리고 미래 오월! 제대로 가고 있나?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 공동선언' 무엇이 문제인가? 5·18 교육,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시끄럽고 끈질긴 소통으로 만들어 갈 미래의 5·18 '시민참여 공론화' 오월! 길을 묻고 답을 구하다	노영기 김 순 백성동 김꽃비 정다운	
14	문화 + 人	문화인 인터뷰 성진기 전남대 철학과 명예 교수 철학, 그대가 머물 수밖에 없는 낯익은 그곳	재단 편집부	
19		청년 문화인 이야기 기획자 김경한 이야기를 꺼낼 한 줌의 용기만 있다면		김경한
22	연재 코너	연재코너_ 고전신화 이야기 탱그리와 부르한 3	김상윤	
25	기획 연재	기획연재_ 건축과 광주문화 ③ 사라질 위기에 놓인 건축유산	신응주	
28	문화 공감	진단 광주관광공사의 방향과 과제	박종찬	
30		프리뷰 "9월 광주는 세계 디자인축제 한마당"		(재)광주디자인진흥원 디자인비엔날레 사무국
34		리뷰 2023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		
38		문화특 위대하거나 아름다운 것들의 교감		김정희
40	포토 에세이	김옥열의 포토에세이 생선이 기가막혀	김옥열	
42		재단소식·함께하는 사람들	편집부	
48		편집후기		

지역문화의 소멸과 생존



오형근 재단 후원회장

요즘 한류 바람을 타고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K문화의 원형이 무엇일까 하는 근원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는 한 집단의 내재적, 외생적 경계를 구분하는 특징적인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수천 년간 형성된 독자적인 DNA가 그 뿌리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전쟁과 외래문화의 교류, 종교의 영향으로 인해 문화의 거대한 조류가 방향을 트는 것도 자주 있는 일입니다.

외세와의 전쟁, 유교, 불교, 천주교 등 외래종교의 전파는 국민 구성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지역적 특성과 맞물려 지역만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낳았습니다.

농경사회의 신분제 굴레 속에 고단한 일상을 삭혀낸 '한'으로 대변되는 문화도 결국은 고통의 내면화라는 소극적인 생존법으로 탄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은 이같이 형성된 문화적 트렌드가 항상 수도를 중심으로 형성돼 왔으며 그 영향력을 무한대로 뻗칠 때 과연 우리 지방문화는 어떻게 생존해 나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최근까지도 지역적 정서와 토대가 강력한 유럽과는 달리 동양 문화는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권력체제와 문화적 동일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지역에서 성공하기보

다 중앙에 진출해 성공하는 것을 가문의 자랑으로 여겼으니까요.

언어는 모든 문화를 함축한 정수라고 하지요. 하지만 요즘 주위에서 전라도 말을 쓰는 사람을 보기가 힘들다. 그만큼 언어와 거리의 장벽을 깨뜨린 서울 문화권으로 동일화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거대 미디어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정보들로 인해 더 이상 지역 고유문화를 후세에 전달하기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영산강 문화는 과거 타지역과 다른 독창적인 토대와 뿌리가 있으며 언어와 습관, 음식문화, 지역공동체의 단결성 등에서 독특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역문화 소멸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단순히 박물관에서 선조들의 유물만 붙잡고 감상하는 것이 아닌 자족적인 문화적 토대를 확보하기 위해 가정은 물론 사회센터, 대학까지 지역문화의 특성을 알리고 전승하기 위한 교육과 활동들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후손에게 지역적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가게 할 책무가 우리에게는 있으니까요. ♪

오월! 현주소, 그리고 미래

80년 5월, 불법적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신군부와 계엄군의 만행에 맞서 불의에 항거하고 정의를 위해 주저하지 않았던 광주공동체, 43년이 지났지만 온전한 진실규명은 요원하고 학살의 책임자는 단 한번의 사죄와 반성없이 사라져 고통과 아픔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2월 19일, 5·18공법 두 단체(부상자회, 공로자회)와 (사)특전사동지회가 강행한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 공동선언』으로 광주공동체는 더욱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두 공법단체는 5·18의 진실규명을 위한 불가피한 행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과도한 당사자주의를 앞세운 궤변에 불과하며 5·18민중항쟁에 대한 부정이자 역사왜곡이라는 여론의 질타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논란과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며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상존합니다.

이제는 제43주년 5·18민중항쟁 기념행사를 앞두고 80년 이후 세대인 광주시의회 청년 의원들이 ‘응답하라! 1980’을 주제로 ‘5·18 누구의 것인가’란 물음에 광주공동체가 답을 해야합니다. 다행히 오는 9월13일(수)에 ‘오월의 대화 시민토론회’를 통해 오월의 당면 문제 해법 모색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고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번 특집기획에서는 ‘오월! 현주소, 그리고 미래’란 주제로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 편집자 주

- 오월! 제대로 가고 있나?
- 오월 문제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노영기_ 조선대 교수
-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 공동선언’ 무엇이 문제인가?
김순_ 광주전남추모연대 집행위원장
- 5·18 교육,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 오월 교육, 사실을 넘어 가치교육으로
백성동_ 광주극락초등학교 교사
- 시끄럽고 끈질긴 소통으로 만들어 갈 미래의 5·18
김꽃비_ (사)청년문화허브 운영위원
- ‘시민참여 공론화’ 오월! 길을 묻고 답을 구하다
정다운_ 광주광역시의원

오월! 제대로 가고 있나?

— 오월 문제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지금 광주 지역 사회는 때 아닌 일을 겪고 있다. 특전사 동지회의 망월동 참배와 ‘용서와 화해’선언 이후 이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부터 불거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과연 이것만이 오월 문제이며 이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의문이다. 또 현재의 오월 문제만 풀 수 있다면 모든 게 잘 해결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오월 문제를 말하기에 앞서 5·18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43년 전 광주의 시민들은 부정한 공권력에 맞서 피 흘리며 저항하였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믿기지 않는 현실에 분노하며 저항하고 총을 들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금남로로, 광주역 앞으로 나아갔다. 불과 며칠 되지 않았으나 잠깐이나마 시민들의 힘에 의해 총칼로 무장했던 최정예 특전부대를 광주 시내에서 몰아냈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죽음을 예상하면서도 광주의 시민들은 전남도청을, YWCA를, 광주 시내를 떠나지 않았다. 언제부터인가 ‘민주, 인권, 평화’ 등을 5·18의 가치로 이야기 하지만, 과연 당시 광주의 시민들에게도 그랬을지는 의문이다. ‘민주, 인권, 평화’ 등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 5·18은 거대한 가치나 담론이 아닌 불의에 맞선 저항이 먼저였기 때문이다.

5월 27일 전남도청을 비롯한 광주 시내를 계엄군

이 점령한 뒤,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뒤부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망월동을 참배하는 ‘오월운동’이 시작되었다. 또 그날의 희생을 잊지 말자며 전국 각지에서 싸움을 함께 했다. 경북 영주 출신의 김의기(서강대 학생)는 5월 30일 서울 한복판에서 광주의 아픔을 함께 하고자 자신의 몸을 내던졌다. 또 광주의 비극을 들은 전주의 신흥고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한 뒤 시위하고, 5월 18일 이후 휴강했다가 6월에 개강한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은 침묵으로 저항하였다. 고립된 광주로부터 시작된 저항은 순식간에 들불처럼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다. 더 이상 광주는 ‘홀로 서있는 섬’처럼 고립되지 않았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찾아간 망월동에서 열사들을 추모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5월운동이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었다. 그 흐름들이 모여져 1987년 6월항쟁으로 폭발하였다. 이제 더 이상 5·18은 ‘폭동’이 아닌 ‘민주화운동’으로 공인되었다.

항쟁이 진압된 이후로도 광주 시내의 광장과 거리에는 광주의 시민들이 함께 있었다. 그런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국가가 5·18을 인정하고 국립묘지가 들어서지는 순간부터 5·18은 전시관에 갇힌 ‘박제’가 되어 버렸다. 그리고 광장을 가득 메우던, 심지어 비가 오는 날에도 우산을 펼쳐들며 함께 하던 시민들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진 계 5·18의 오늘이다. 해마다 5월 18일이 되면 국립5·18민주묘지에서는 대통령들이 참석하는 공식 추모식이 열리고 있지만, 그날의 함성은 사라진 채 순한 양처럼 변해버렸다면 지나친 평가일까? 부정한 권력에 맞선 저항의 정신은 찾아지고 광주의 시민들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도 ‘전국화’와 ‘세계화’를 지향하는 이 당혹스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몹시 간히고 닫혀버린 공간처럼 되어 버린 망월동을 보며 5·18을, 오월문제를 다시 생각해본다.

특전사 동지회의 ‘용서와 화해’의 문제로부터 촉발된 오월 문제의 해결은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1993년 광주 지역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오월 문제 해결을 위한 5원칙으로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집단배상, 명예회복, 오월정신의 계승을 위한 기념(추모)사업’으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뜻깊게 합의한 원칙들 중에서 제대로 지켜진 것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에 다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3년 현재 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기대만큼의 성과가 있을지 궁금해진다. 또 책임자들로 짐작되는 자들이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다. ‘깨진 파편’처럼 행해진 개별 보상마저 충분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음에도 국가는 제대로 보상하지 않았다. 명예회복과 기념사업은 그나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여기에 더해 5·18은 더 이상 ‘현실’이 아니다. 흘러간 과거 속의 이야기이거나 ‘역사’이다. 미래 세대들에게 5·18은 교과서에서 배운, 그나마 광주에서나 배우는 ‘역사’이다. 해마다 5월이면 망월동을 찾겠지만, 이들에게 5·18은 지나간 과거일 뿐 깊이 새겨야 할 현재나 전망할 수 있는 미래가 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극우세력의 도발이 계속되고 5·18이 지금과 같을 수 있을지 조금은 암담하다.

불편하고 참담한 오늘의 5·18에서 무엇을 해야 하

는 것일까? 답은 멀리 있지 않다. 무엇보다 예전에 지혜를 모아 세웠던 원칙을 되새겨 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도 시도해보며, 최소한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하는 것으로부터이다. 기념사업은 더 이상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내일을 전망하며 미래 세대에게 열린 공간을 허용해야 한다. 원칙은 지키되 탄력 있게 운영하는 묘안이 필요하다.

오늘날 한국의 과거사는 엄중한 현실에 서있다. 한국의 역사학계에서 수십 년 간 축적한 연구와 자료에 근거해서 일제의 침략과 친일파 인사들의 행위를 비판하였다. 친일파에 대한 정부의 공식 보고서와 민족문제연구소의 인명사전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다. 최근 들어 정부의 관련 부서 장관이 앞장서서 친일을 왜곡하고 있다. 이것은 해방 후 단 한 번도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채 왜곡이 계속되어 온 결과이다. 이 기조는 친일에 머물지 않고 머잖아 5·18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이라도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상상할 수도 없는 왜곡이 역사가 되는 참혹한 현실을 목격할 수도 있다. 어쩌면 최근 불어 닥친 오월 문제는 그 시원이 될 수 있다.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

노영기 조선대 교수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 공동선언’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월 19일,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이하 부상자회)와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이하 공로자회) 두 단체가 (사)대한민국특전사동지회(이하 특전사동지회)와 ‘용서와 화해를 위한 대국민 공동선언(이하 공동선언)’을 진행하였다.

『80년 오월 광주시민들을 학살했던 계엄군을 피해자로 규정해 ‘진지한 용서와 화해의 관점에서 위로하고, 필요시 법적·제도적 지원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공동선언의 골자이다.

공동선언이 추진되는 전·후과정에서 광주·전남의 113개 단체, 5·18기념재단 역대 이사장, 광주광역시의회, 광주지역 국회의원 9명 등은 입장을 발표하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특전사동지회와 함께 군화발과 특전사 군복 차림으로 망월동 국립5·18민주묘지를 기습 참배하고, 공동선언식 현장에서 특전사동지회 최익봉 총재는 “명령에 따라 파견돼 광주에서 질서 유지의 임무를 맡았던 군 선배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시도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에 광주·전남 199개 단체(2023년 8월 현재)는 ‘공동선언’을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부정하고,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국민과의 합의없이 오월

두 공법단체에서 ‘가해자’를 ‘피해자’로 면죄부를 주면서 5·18 역사를 왜곡한 행위』로 규정하고,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공동선언의 폐기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회, 공로자회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대책위 집행부를 무디기로 고소하고, 급기야 공법단체 외에는 ‘5·18’ 명칭을 쓰지말라고 하더니, 1993년부터 30년을 이어온 ‘5·18민주항쟁기념행사위원회’ 해산을 요구하며 탈퇴하고, 이제는 내년 5·18 44주년 행사는 별도의 행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나섰다.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공동선언, 어떤 내용이 문제였던 것일까?

지금 상황의 시작점이 된 공동선언의 내용 중 크게 세 부분만 살펴보기로 하자.

첫 번째, “5·18 당시 광주 현장에 계엄군으로 투입되어 임무를 수행한 계엄군은 엄정한 상명하복을 원칙으로 하는 군인의 신분으로 상부의 명에 따라 공적인 임무를 수행한 장병들이었다.”라고 말한다.

계엄군이 광주에서 저지른 학살과 폭력은 공적인 임무가 아니라 국권을 찬탈하려는 불법행위이며, 5·18 특별법에서도 명확히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

고 있다. 그리고 항쟁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에 대한 학살들도 벌어졌던 바, 그들의 행위는 공적 임무 수행이 아닌 민간인 학살로 바라봐야 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군인이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것은 공적 임무로 볼 수 없다.

두 번째, “우리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활동을 민주시민의 정의로운 항거를 억압한 ‘가해자’로 볼 것이 아니라, 43년 전 상황에서 상부의 명에 복종하는 것이 불가피하였고 그 다수가 오늘날까지 오랜 정신적·육체적 아픔으로 점철해 왔던 점에서, ‘피해자’로 바라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라고 말한다.

80년 5월 광주에 왔던 공수부대는 시위 초반부터 이미 완전군장 차림으로 총검을 장착한 채 잔인한 진압을 자행했다.

만삭의 임산부와 초·중등학생에게 총을 쏘았다. 도망가는 고등학생의 뒷머리를 향해 조준 사격을 가했다. 길 가던 시민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대검으로 찔렀다. 그들의 행위는 불가피함의 수준을 한참 넘은 반인권적 범죄 행위이고 명백한 가해자다. 계엄군이 피해자이면, 광주시민을 학살한 가해자는 누구란 말인가?

세 번째, “5·18민주화운동을, 가해와 피해자라는 시비론(是非論)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당시 양측 모두가 실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양시론(兩是論)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한다.

‘양시론’은 그동안 전두환과 5·18 왜곡세력들이 주장해온 내용이다. 양시론적 관점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면서도 국가폭력에 맞섰던 시민과 그들을 참혹하게 학살했던 계엄군을 동일선에 놓는 행위이다. 양시론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국민을 살상한 계엄군의 행위도 옳았다는 궤변이다.

또한 두 공법단체(부상자회, 공로자회)는 “역사적

관점에서라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만남으로 분위기를 전환하여 광주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원칙 중 진실규명에 대하여 당사자끼리 해결해보자는 것”이라고 대국민공동선언의 불가피함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특전사동지회는 공동선언문에도 어떤 사과나 반성, 진실 고백도 없었다. 지속되는 반대 여론과 진정한 사과 요구에 몇몇 개인은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진정한 사과’의 전제로 이야기하였던 ‘계엄군 자신을 들이 행한 행위에 대한 고백으로 5·18 진실규명에 대한 협조’는 빠진 것이다.

그나마 특전사동지회와 두 공법단체는 ‘특전사 5·18 자체조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실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하니, 출범 이후 3개월 동안 조사를 위한 연구·활동은 커녕 관련 예산조차 마련하지 않아 사실상 보여주기식 행보에 그쳤다는 내부 지적을 받으며 결국 자체 해산하였다.

위와 같이 공동선언의 추진과정, 내용, 이후 두 공법단체의 행보 등 그 어느 하나 쉽게 동의하기 어려우며, 5·18기념재단에서 주최한 시민대토론회에서도 “진정한 반성과 사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용서와 화해’는 진실규명 다음에 이루어져도 늦지 않을 것이다.

결국 5·18 진실규명에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시도민들에 상처만 내고있는 공동선언은 이제 폐기되어야 한다. ♪



김순 광주전남추모연대 집행위원장

5·18 교육,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 오월 교육, 사실을 넘어 가치교육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는 40년이 넘었지만, 5·18 교육의 역사는 길지 않다. 나도 광주에서 나고 자라 학교를 다녔고, 내가 다녔던 모교에 ‘화려한 휴가’의 주인공 모티브가 되었던 선배님도 계셨지만 당시에는 그 선배님에 대해 공부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나의 학창 시절에는 5·18 교육에 대한 근거가 없었다. 근거가 없으니 공식적인 교육 자료도 없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5·18 민주화운동 교육활성화 조례’는 2013년에 지정되었다. 뒤이어 2017년에는 전라남도교육청이, 2019년에는 충청남도교육청이 조례가 지정되어 5·18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는 상태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활성화 조례에서 정의하는 ‘5·18 교육’은 다음과 같다.

5·18의 역사적 사실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 역사교육과 민주·인권·평화와 같은 5·18의 가치를 다루는 민주시민교육 모두를 의미한다.

과거의 5·18 교육은 ‘역사적 사실’, 즉 진실을 알리는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일단 1980년 5월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려야 했기 때문에, 사실을 중심으로 한 자료들과 영상자료, 피해자나 생존자들의 증언들을 중심으로 많이 알려 왔다. 이런 시간을 거치면서 현재 교과서에는 공식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전개와 과정,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 등이 실려 있다. 또한, 5·18 기념재단 역시 교육청과 함께 지속적으로 교육자료를 개발하였고, 일선 학교에 보급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 왔다.

조례 제정 이후 5·18 교육의 역사 10년. 이제는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고민해볼 시간이 되었다. 지난 몇 년간 꾸준히 5·18 사적지 안내와 5·18 교사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많이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본다.

먼저,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5·18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배웠던 세대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잔인한 이미지들이 많이 마음에 남았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당시의 참상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을 처음 접했을 때 받았던 충격에 대해서 말하기도 한다. 실제 영상과 사진

은 5·18을 직시하게 하기도 하지만, 트라우마를 심어 주기도 한다. 이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정서적 발달 단계에 따라 5·18에 대한 교육 내용과 양을 함께 약속하고, 제도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2017년, 5·18 기념재단에서 발표한 ‘오월 교육원칙’ ⑤번과 ⑥번에도 정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의 인지발달 단계와 정서감응 지수를 고려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현재 광주에 있는 5·18 사적지 프로그램들도 조금 더 정선하여 어린 학생들이 왔을 때, 정서적 부담 없이 흥미로운 학습 자료를 많이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학생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림책이나 동화책을 활용하거나, 방탈출 게임 등을 개발해서 활용할 수도 있다. 재미 속에서 의미를 찾는 활동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교육까지 5·18에 대한 내용이 단순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내용으로 가르쳐야 하는지도 적절하게 선정되어야 한다.

두 번째, 다른 지역과의 만남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의 전국화를 도모해야 한다. 학생들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수업을 했던 것 중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은 ‘5·18 민주화운동을 다른 지역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였다. 공부한 내용을 다른 지역에서 체험학습을 온 친구들에게 자신들의 언어와 나름의 방법으로 소통하는 것이다. 내용의 풍부함만 따져보자면 전문 해설사에 비할바가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다가오는 진정성과 의미는 훨씬 컸다. 설명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자연스럽게 5·18이 새로운 모습으로 기억되는 것으로 이어진 것이다. 기성 세대와 정치인들이 만들어 둔 지역감정의 벽은 미래 세대의 만남으로부터 허물어질 수 있다.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 교류를 지원해야 하고, 학생들이 만나는 장을 쉽게 만들 수 있게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도 함께 해야 한다.

셋째, 사실을 가치 중심의 교육을 해야한다. 5·18에는 수많은 가치들이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민주, 인권, 평화라는 가치를 많이 앞세웠지만, 5·18 민주화운동이 담고 있는 가치는 이뿐만이 아니다. 고립된 환경에서도 주변의 사람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었던 ‘공동체’의 가치, 독재 정권에 맞서 시민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당당하게 이야기 할 줄 아는 불의에 대한 ‘저항’의 가치. 80년 5월의 광주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는 오늘날 무너진 공동체를 복원하는 데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5·18 교육의 목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을 길러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80년 오월이 보여주고 있는 정신들은 그때의 시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 있어야 한다. 요즘 사회에는 너무나 많은 갈등, 혐오와 차별, 배제가 만연해 있다. 오월의 정신이 소외되고 힘든 이들에게 공동체와 연대할 수 있도록 돕는 끈이 되었으면 한다. 현재 우리가 처한 문제에 공감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해결해 나가는 교육이 진정한 5·18 교육이 될 것이다. ♪



백성동 광주극락초등학교 교사

시끄럽고 끈질긴 소통으로 만들어 갈 미래의 5·18

지난 5월 31일 전일빌딩에서는 <옛 전남도청 전시 콘텐츠 복원모델 도출 세미나>가 열렸다.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의 추진 경과 및 계획을 점검하고 전시콘텐츠를 중심으로 복원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제언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세미나에서 가장 열띤 논의의 쟁점이 되었던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한 복원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 이는 복원의 목적과 방향이 누구를 향할 것인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미나에서 강원대학교 평화학과의 이동기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발제 중 보여주신 이미지가 기억에 남는다. 1980년 5월 30일,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는 의미로 잠시나마 도청 앞 분수대를 정지시켜 달라고 요청한 한 시민의 민원전화 내용이 수기로 적힌 당시의 민원일지였다. 일지에는 “지금 우리 광주 시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숙연한 자세로 영령들의 넋을 위로 해주어야 할 시점에 전국으로 방송되는 매스컴을 통해 도청 앞 분수대를 화면으로 보이며 예전으로 돌아왔다는 보도를 할 적에 한 광주 시민으로서 마음 아픈 일이었다”며 당분간만이라도 도청 앞 분수대를 정지시켜 달라는 35세가량 여자 시민의 간곡한 민원 내

용이 어른스러운 글씨체로 토박토박 적혀 있었다.

텔레비전으로 이곳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뉴스 보도를 보고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으면 민원실로 전화를 했던 젊은 여성과, 그 민원인의 간곡한 전화의 내용을 구구절절 놓치지 않고 반듯한 글씨로 적은 담당자와, 그 담당자의 문서에 결재 사인을 차례차례 남긴 80년 5월 30일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실 그 어떤 훌륭한 전시콘텐츠보다 이런 날 것의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다는 교수님의 말씀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 역시 공감했다. 다만 ‘날 것’을 보고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월 혹은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대학시절 금남로를 딱 채운 현수막들 사이에서 발견한 대동세상이라는 단어는 5·18 비경험세대인 나에게 약간의 소외감?을 느끼게 한 단어였다. 사전적 의미로 모두가 함께 어울려 평등하게 살아간다는 대략적인 뜻은 이해했으나 어떤 맥락과 의도를 가지고 이 단어가 5·18 현수막에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대동세상은 역사책에서만 본 용어이지

일상에서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80년 5월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이 단어에 자연스럽게 투영시키는 이미지와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 앞서 이야기한 민원일지 사진도 마찬가지다. 설명 없이는 그 이미지가 담고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충분히 읽을 수가 없었다. ‘날 것’을 스스로 소화하지 못한 것이다. 나에게서는 그분들이 겪은 세월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90년생인 내게도 이만큼이나 생소하니 나이가 더 어리다면 얼마나 더 어렵고 낯설게 느껴질지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게다가 워낙 뭐든지 빠르게 변하는 시대니까.

2021년 저마다의 사연들로 5·18을 마주하고 있는 80년 이후 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포스트 5·18』이 나왔다. 저자들은 5·18 이후 세대들이지만 그들의 세상에서 5·18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며 삶의 방향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한다. 이 책에서 예술가이자 연구자로 활동 중인 이지영 씨는 “현재 오월은 추모와 진상규명이라는 아직도 절박한 과거의 과제와 1980년에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다음 세대로의 기념의 주체가 전환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 미래의 과제 사이에서 춤을 추고 있다(이지영, 2021)”고 말했다.

5·18을 새롭게 이야기하는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우리에게 세월과 경험의 차이가 있다는 것과, 기억의 주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수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모든 사람이 거리로 나섰던 시대가 저물고 오월정신을 상징하는 저항과 연대라는 단어에 사람들이 부여하는 의미도 세대 차이만큼 다르다. 다채로운 의미의 겹겹들을 광주의 오월이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리고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는 끈질긴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5·18은 끝나지 않은 역사다. 여전히 수많은 고민과 논쟁이 필요한 시끄러운 민주주의의 현재 진행형이다. 때로는 소모적일 때도 있고 지지부진하게도 느껴지겠지만 우리가 이 과정을 오월정신으로 여기고 자랑스럽게 수행해야 한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과정은 언제나 그랬듯 광주가 가장 잘하는 일 중 하나이고 말이다. ♪



김꽃비 (사)청년문화허브 운영위원

‘시민참여 공론화’ 오월! 길을 묻고 답을 구하다

올해는 참 ‘유난’했다.
유난히도 많은 눈이 내린 겨울이 지났고
유난히도 짧은 봄이 스치듯 지나갔으며
유난히도 긴 폭염이 이어졌고, 유난히도 긴 장마를
지냈다.
그런 중 광주와 떼어놓을 수 없는 5·18도 되풀이된
유난을 겪었다.

올해 2월 일부 오월단체가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미진한 진상규명을 타하며 당
사자 주도의 해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광주 시민의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이들은 특전사
동지회와 ‘용서와 화해 대국민 선언식’을 강행했다.

올해 5월에는 범국민적 관심과 지지 속에 5·18광주
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했
지만 광주를 찾은 대통령의 기념사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고 5·18에 대한 언급이 아닌 치적홍보에만 치우
쳐 광주시민과 국민의 비난을 받았다.

올해 6월에는 몇 번이나 실패했던 특전사동지회와
일부 5·18단체의 국립5·18민주묘지 참배가 강행됐고
또다시 충돌을 빚었다.

그리고 일부 5·18단체와 특전사동지회가 야심 차

게 추진한 자체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전격적으로
해체됐고 또다시 반복된 혼란과 아픔은 오롯이 광주
시민의 몫이 되고 말았다.

1986년에 태어난 나는 5·18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변호사로 일한 약 8년의 시간 동안 5·18과
관련한 역사왜곡 소송을 수행하며 5·18이 인생의 큰
울림으로 자리잡게 된 필자는 광주광역시의회에 당
선된 이후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5·18과 함께 하
며 오월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을 이어가게 됐다.

그리고 거둬들인 혼란에 놓인 5·18을 바로 세우고 오
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공론화’라
는 결론에 닿게 됐다.

5·18은 지난 43년 동안 여러 부침에 시달려 왔다.

반민주 군사독재 하에서는 ‘폭동’으로 치부됐고 직
선제를 도입하고 민주정권이 수립된 이후 한동안은
‘정치적인 배려’ 정도로 인식됐으며, 지금까지도 오
월정신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는 세력이 여기저기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지난 43년간 몇몇 전문가나 특정 조직이 도
맡아 진행한 5·18과제 해결 시도는 사실상 의미있는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제43주년 5·18기념식 즈음에 5·18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다섯 명의 광주광역시의원들은 5·18이 처한 문제 해결을 위한 화두를 던지는 릴레이 5분 발언에 나섰고 발언의 취지를 이어가기 위해 광주광역시의원들과 논의 끝에 5·18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영광스럽고도 엄중한 책무를 맡게 된 필자는 5·18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5·18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시민이고 둘째도 시민이다.

누구든 5·18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하고 누구나 5·18에 대해 이야기 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오월문제를 '5·18과 연관있는' 단위만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계속된다면 5·18은 또다시 아픔에 빠질 수밖에 없다.

광주는 1980년 '민족민주대성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수많은 시민이 도청 앞에 모여 자유롭게 그리고 민주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고 하나 된 목표를 향해 행동했다. 그야말로 그 자체가 '민주주의'였던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필자는 최근 5·18기념재단에서 주최한 '시민대토론회'에서 광주시민의 5·18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욕구를 확인했다.

시민대토론회를 비롯한 시민의 의견 수렴 과정이 시작되면 누군가의 '공과 과'가 아닌 '자유로운 시민의 의견'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존중해야 한다.

2016년 추운 거리를 뜨겁게 채운 촛불혁명이 권력을 사유화하려 한 세력을 심판했을 때 시민들은 촛불혁명에 참여한 어느 누구의 공과 과를 나누지 않았다.

모두가 기뻐했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무한한 시민의 힘에 대한 경외를 표했다.

필자는 보통의 시민의 참여가 보장된 거대한 용광

로와 같은 토론의 장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한 오월문제의 본질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노력 속에서 오월정신이 우리 국민이 계승해야 하는 정신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수많은 시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지루하고 긴 시간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아무런 제한 없이, 자격을 논하지 않고 시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것을 확신한다.

광주광역시의회 5·18 특별위원회가 활동하는 1년의 기간 동안 느리지만 늦지 않게, 그리고 결코 가볍지 않게 오월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시민의 고민이 한 곳에 모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



철학, 그대가 머물 수밖에 없는 낮익은 그곳

재단 편집부

철학은 가장 오래되고 낯익은 학문이지만 그래서 진부하게 느껴질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이 숨쉬는 세상’ 그런 풍경을 위해 30여 년-지난 1996년 대중을 위한 인문학 동지 ‘카페 필로소피아’의 문을 연 이래 인문 철학반 ‘니체를 읽는 할머니’와 ‘몽클래스’ 외 크고 작은 철학 세미나, 강연회 등을 개최하며 인문도시 광주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슬아슬하지만 아름다운 생 그 안에서 ‘인간이라는 직업’(알렉상드르 줄리앵)을 가진 이들에게 ‘고귀함’과 ‘기쁨’을 전하는 철학 유혹자 전남대 철학과 성진기 명예 교수를 만나본다.

성진기 교수는 평생을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1844~1900)와 함께 해오면서 한국 철학회장과 한국 니체학회장을 지낸 원로 철학자이다.

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곳은 교수님의 연구실을 겸한 강의실 공간인 것 같은데 분위기가 아담하고 벽면에 빼곡한 책을 보니 작은 도서관 같은 느낌입니다. 이 연구실은 교수님께서 운영하셨던 ‘카페 필로소피아’나 「인문학 동지」와 같은 곳인가요?

답 ‘카페 필로소피아’가 광주세무서에 등록된 명칭이고요, ‘인문학 동지’는 나중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대략 27년 전인데요, 1996년 초 학동에 “철학이 숨 쉬는 세상을 염원하며”를 표방하고 일반 시민을 염두에 둔 철학 공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철학 교과서 공부보다는 우리들의 실제적 삶의 얘기를 나누는 성격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공부 과정에서 철학자가 등장하고 철학적 이론을 천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철학 카페’라는 낯선 이름이 사회에서 눈에 띄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생각과 달리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대화라고 해도 주제에 적합한 전문가의 리드가 필요해 무보수의 인맥을 동원

했는데 먼저 서울의 교수들이 우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고인이 된 동국대학 황필호 교수님, 서울대 황경식 교수님이 찾아 주셨습니다. 전남대 의대 이무석 교수님, 예술대 이태호 교수님이 뒤를 이어 응원의 손길을 주셨지요.

제가 하는 일이 신통했던지 카페에 그림을 걸어주고, 집기를 마련해주고, 강사님들 차를 대접해 주는 지인들의 고마움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대학에서 서클 지도교수였다는 인연으로 공간을 마련해준 젊은이들이 있었기에 큰 십시일반(十匙一飯)을 이뤄냈습니다.

문 캠퍼스의 철학처럼 학위나 논문을 위한 학문으로서의 철학이 아니라 마음속에 인문적인 변화를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우리 사회가 지금 보다는 따뜻한 사회로 변화하지 않을까 하는 소박한 소망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개인적으로 철학은 외롭고 그리움이 가득한 학문이라는 생각입니다.

답 철학하기 외롭지요. 철학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던 때가 있었어요. 요즘도 철학 공부가 어렵고 앞길이 막연해 선호하는 하는 편은 아니지요. 그런데 외로우니까 정진할 수도 있고 정진하다 보니 진지해지는 것 같습니다. 철학은 습성상 눈앞에 있는 것과는 다른 있어야 할 것을 찾고 그리워하거든요. 당유(當有)라고 말합니다만. 철학을 하려는 사람은 동경의 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경우를 봅니다. 자기 분야의 깊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 철학을 찾고 있는 현상말입니다. 저는 매우 건강한 태도로 보였습니다.

제가 ‘철학카페’를 만들어 캠퍼스 밖 사람들과 교우하는 것은 함께 모여 공동의 동경을 모색하고 이 생활의 게을러짐을 예방하려는 장치입니다. 한편, 철학을 어렵게만 보고 기피 하는 사람들에게 철학은 재미있고, 누구나 할 수 있고, 결국 철학은 좋은 거

라는 의식을 갖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지요. 좀 거친 표현입니다만 전 ‘철학의 유혹자’ 정도로 자처하고 싶습니다.

사실 서양 선진국에는 철학 카페 또는 그와 유사한 공간이나 단체들이 많은 줄 압니다. 제가 프랑크푸르트에 머물 때 보았던 ‘덴크바(Denkbar)’는 벤치마킹 하려고 접촉한 곳이었습니다. 강의, 전시, 마실거리 판매 등 모여 토론하고 인격 교환이 가능한 공간이었어요. 시의에 맞는 주제를 내걸고 일정 기간을 두고 시리즈로 심화된 토론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덴크바 흥내를 다는 못 내고 테이블을 장탁자가 아닌 2, 3인 용 여러 개를 선택한 것은 해냈습니다.

지금 영무파라드 오피스텔에 오기까지 7번 정도 이사를 했는데요 슬슬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동에서, 전남대 후문으로, 대인동 누리문화재단 건물로, 일곡 상가, 장동 전남여고 정문 앞으로, 그 사이 공간 마련에 문제가 생겨도 강의는 계속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카페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5·18 기록관), 25주년 기념 학술대회(은암미술관)를 초라하지 않게 진행해 많은 시민의 격려를 받았습니다. 요즘은 2023년 창립 30주년 구상하느라 잠이 줄었습니다.

문 대학을 퇴임하신 후에도 계속 인문철학 강의, 특히 ‘니체 철학’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현장에서 실천하고 계신데 혹시 ‘철학 교수 성진기’ 외에 ‘나는 이런 사람, 혹은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답 제가 누군지 분명히 알면 참 기쁠 것 같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어디 가서든 ‘지도자’는 아닙니다. 아니 못 됩니다. 시내 나와서 강의도 하고 무슨 대표도 할 때가 있긴 하나 매번 쑥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가 나를 공부하게 합니다. 지금도 공부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내 속에 숨어

있는 나의 동행자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운 좋게 교수직을 수행했고 나이도 많아졌으니 이제 인생의 모범자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관심을 가진 사회적 문제가 있는데요, 가정도 학교도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이 없다는 세평입니다. 또 화평보다는 투쟁의 가치만을 선호하는 풍토입니다. 세상이 온통 격투기장이 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패배자가 속출하고, 이들은 곧 인생 낙오자가 되고, 주저 없이 세상을 향해 증오심을 쏟아내는 것으로 봅니다. 이 대목에 인문학의 쓰임새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문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의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지라도 개인의 긍지감을 심어 주는 일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면에서 철학과 문학은 인생에 대한 ‘비명제적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맡고 계신 인문강좌 프로그램에서 교수님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의 연령층이 대부분 중장년층이 많은데요, ‘철학’의 주요 테마가 혹시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인가요? 그냥 ‘좋은 삶’을 위한 여정 안내라고 한다면 청소년이나 청년 세대에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답 저는 우리 사회에서 중년층에 애정이 많습니다. 중년층이 우리 사회 곳곳의 허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허리는 신체의 한 부분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중년의 가치관, 인생관의 건강성입니다. 중년은 가정, 사회, 국가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중년은 나이 드는 압박을 받고 있으며 급기야는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인문학적 공부가 치유의 지혜를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년의 머리와 손이 우리 사회의 비전’이라는 강좌를 개설하기도 했고요. 가끔 공부하는 회원들과 이런 제 속을 털어놓

는 시간을 가집니다. 가능하다면 지금 유럽에 등장한 ‘인생학교(The School of Life)’ 시스템을 응용하고 싶기도 합니다. 삶의 실질적 주제들을 토론하고 생각을 모아 인생의 지혜를 튼튼히 하는 장치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The School of Life, in Gwangju’ 같은 시스템이지요.

문 ‘철학’하면 왠지 ‘가난하고 높고 외로운’이라는 생각이 들거나 어려운 담장 밖 이야기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철학이 있는 사람은 매혹적이라고도 하지요. 예를 들어 샤넬이 그의 패션에 철학을 입혔던 것처럼 철학은 개인의 삶에 도전적 용기를 준다거나 열정을 주는 것 아닌지요? 교수님의 평소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답 철학이 없으면 깊이가 없어서 룡련을 못해요. 나는 철학을 하면서 내가 못 냈다거나 그런 생각을 털어낼 수 있었습니다. 철학을 한다고 무슨 대접을 받는 건 아니지만 내가 천대받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철학 공부 자체가 자아의 내공을 쌓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나는 철학이라는 학문을 존중했고, 공부 역시 매우 진지하게 했습니다. 나는 영문학과에서 철학과로 전과를 했으니까 철학에 대한 애정이 좀 컸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철학이 중요하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철학 전공자가 될 순 없고, 일반인들은 교양으로 철학을 가까이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생의 향기를 찾는 분이라면 가장 적절한 학문으로 철학을 권유합니다.

문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그 일을 잘하고 그것으로 차이를 만들어야 인생의 승부를 가릴 수 있다고 합니다. 목표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지요. 이론의 넓이 보다 경험의 깊이를 말하기도 하는데 이런 점에서 인문 철학이 개인의 삶에 주는 변화를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답 다리가 부러지면 철심을 넣고 바로잡지요.



철학은 연약하고 방황하는 인생에 철심을 박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 봅니다. 구체적으로 철학책 몇 페이지라도 읽다 보면 실감 날 겁니다. 인생의 고귀한 것을 알게 되거나,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귀하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요. 집안 어딘가 작은 공간에 책상을 두고 독서하는 생활은 사치가 아니라 인간다운 자기 조형의 기본 시설입니다. 철학 공부는 일단 철학 관련 독서라고 봅니다. 그리고 철학적 문제를 스스로 사유하는 과정으로 나아가고요.

문 교수님이 기획하셨던 “중년의 건강한 삶 만들기 프로젝트”의 한 주제가 “아이 러브 돈키호테”인 것을 보면서 아주 기뻐던 생각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텍스트로 세상을 읽는 방법 혹은 개인적 경험의 두께 쌓기를 생각했습니다. 그 주제의 의미에 대해 더 듣고 싶습니다. ‘돈키호테’는 누구나 마음속에 한번은 꿈꾸고 있거나 호기심을 키워주는 인물인데 생각하면 어딘가 사회 부적응자 일 수 있지만 지금은 라만차나, 돈키호테 같은 열정이 필요한 시대인데 살다보면 자존감은 자꾸 없어지고 내가 생각하며 꿈꾸던 바가 아닌 다른 나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작아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제목이 좋았어요.

답 제가 강의 제목으로 들고 나온 ‘아이 러브



몽클래스 회원들과 함께 한 시민대학 강의

돈키호테'는 이해의 폭이 넓습니다. 돈키호테는 시골 무명의 기사 처지에 가당 없는 도전을 감행하지요. 대책 없는 무모한 처신으로 치부할 만하지요. 그러나 그가 던지는 메시지는 큼니다. 이 사회의 어렵고 불합리한 것을 척결하러 나서는 용기와 도전, 그리고 결단력을 과시하는 인물입니다. 비슷한 인물로 그리스인 조르바, 노인 산티아고 등 소설 작중 주인공을 들 수 있겠네요. 철학자 니체의 사상이 그 범주에 들겁니다. 어쩌면 제가 27년 전 '카페 필로소피아' 간판을 들고 거리로 나선 것도 작은 돈키호테 같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사소한 저를 30여 년 동안 외면하지 않은 시민들이 있어서 다행이듯이 돈키호테 역시 인류의 정신사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를 읽고 있는 20여명의 클래스가 건강한 꿈을 희망하는 차원에서 '몽 클래스'로 작명됐습니다.

문 다음으로 광주의 인문 정신에 대한 담론의 장은 여러 곳에서 다른 형식으로 계속 되어 왔습니다. 혹시 5·18이 안고 있는 어려운 과제 등 광주 정신에 대해서 지역의 원로로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주지하는 대로 80년 5월 운동을 통해 광주는 민주의 도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진상규명이 미흡하고 소수지만 폄훼하는 부류가

있어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저는 5·18 운동은 국가적 사건이요, 5·18의 이념은 인류적 화두여야 된다고 봅니다.

인문학자로서 소망은 광주가 민주의 도시라는 평가에 '인문의 도시' 달리 말해 '인간의 도시'라는 명성을 보태고 싶습니다. 인문학은 인간의 가치를 구현하려는 학문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이념과 충돌할 이유가 없다

"광주는 휴머니즘이 건강한 도시다. 인간들이 사는 마을이다." 이런 평판을 받아야 하고 우리는 그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평가와 명성은 대물림할 가치로 봅니다.

문 마지막으로 100세 시대 교수님만의 건강 유지법이 있으신지요?

답 나는 걷는 것 외에 운동이란 없습니다. 그러고도 오래 사는 비결을 대라면 참 궁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은 자기 나름의 리듬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내 리듬을 감지해요. 그리고 존중합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신경 쓰고, 희노애락을 결행할 때도 내 리듬을 따릅니다. 리듬을 이탈하면 무리가 되겠지요. 내 무리를 체크해 주는 일은 집사람 몫인데 성가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무리도 정신위생상 즐거우면 문제없어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누구나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 하고, 하고 싶은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면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다고 봅니다. 저는 터무니없는 장수는 거절합니다.

감사합니다. 개별적인 사람들 속에 존재하는 공감의 내밀한 풍경,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철학의 일상화, 대중화를 위해 늘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 일에 폭 빠져 계시는 성진기 교수님과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이야기를 꺼낼 한 줌의 용기만 있다면

“그게 되겠냐?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를 누가 들어?” 2016년 11월 남들과 조금 다른 길을 선택하고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일을 이야기했을 때 가장 많이 들은 말입니다. 강연은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새로운 정의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죠. 그래서 강연의 새로운 정의를 강연하겠다는 취지로 ‘강연을 강연하는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사용했습니다.

다들 돈도 안 되는 일을 왜 하냐고 물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저도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한 것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부딪치고 깨졌습니다. 2017년 6월 30일이 되던 날, 강연을 시작한 지 8개월이 지나 지역에서 최초의 청년강연대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예산과 서툰 경험 때문에 힘들었으나 오롯이 열정과 젊음으로 해낼 수 있었죠. 그 날 제작비 3000원의 대상 상장을 받고 평평우는 수상자를 보며 느꼈습니다.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여전히 저를 소개하는 키워드와 직업은 다양합니다. 하나로 설명하기가 어렵거든요. 강연자, 문화기획자, 교육자, 활동가, 작가라는 직업으로 분류되고 대표님, 선생님, 감독님, 작가님, 교수님으로 불립

니다. 그래서인지 환갑이 지난 저희 부모님은 여전히 제 직업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시고요. 하나를 선택하라면 이야기 기획자로 불리고 싶어요. 지난 7년 동안 수많은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다듬고, 나눠온 시간이 진하게 느껴지는 타이틀이랄까요. 그래서 다시 소개할게요. 7년 차 이야기 기획자, 이야기브릿지 대표 김경한입니다.

강연을 강연하는 청년

다른 이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무작정 덤벼들었던 강연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걱정과 우려는 계속되었죠. 강연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말과 사업성이 없어서 돈 벌기는 어려울 거라 말을 들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생각했어요. 강연에 대한 그들의 의견이 나의 현실이 될 필요는 없다고요. 오히려 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단 하루도 치열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강연의 새로운 정의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만 있으면 강연의 매력에 대해 말하다 보니 ‘강연을 강연하는 김강연씨’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었죠. 지금은 하나에 미치도록 몰두해본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작게나마 본보기가 되고 싶습니다. 청년 중에 기획자 또는 예술가 등 본인이 좋아하



청년단체 영보이스토리

는 것을 도전해보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역사회에서 청년 커뮤니티 또는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늘 외롭다고 생각해왔는데 청년강연단체 <영보이스토리>를 시작으로 지금의 <이야기브릿지>가 되고, 대학생 김경한이 이야기 기획자 김경한이 되는 과정에는 많은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함께해준 그들이 있어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건 결국 함께하는 사람들 덕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열두 번의 강연대회와 수십 번의 토크 콘서트를 만들고, 강연교육으로 청년들이 자기 이해와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온 시간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결실이었습니다.

지금은 '강연'에서 '이야기'라는 콘텐츠로 확장하여 이야기할 기회를 만드는 문화기획이나 자신의 이야기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수집하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스피커의 역할도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2023년, 올해는 광주청년문화를

대표하는 광주청년주간 총감독이 되어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축제를 총괄하게 되었죠. 부담을 안고 다양한 청년들과 함께 내실 있는 행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평범한 여러분의 이야기에는 저마다의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강연을 강연하는 청년은 오늘도 대한민국 모든 시민의 이야기가 세상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행동하며 노력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삽니다

지난 7년 동안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다듬고, 공유해왔습니다. 그들은 돈이나 명예, 그 흔한 자격증 하나 없이 강연을 시작한 저에게 가족을 잃은 슬픔, 장애로 인한 어려움, 막막한 현실에 주저앉은 좌절감,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 등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사람들의 빛나는 이야기를 기억 속에 묵혀두는 것이 아까워서 짤막한 글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채로운 이야기가 모여 개성 있는 콘텐츠로 변모했고, 이야기브릿지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습



강연 교육



토크콘서트

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날 것의 콘텐츠 ‘강연’이 좋아서 미쳐있던 시간이 준 선물이었죠. 그렇게 만들어진 청년을 기록한 이야기책 『당신의 이야기를 삽니다』를 출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연으로 만났던 모든 사람이 김경한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야기브릿지 덕분에 성장했고, 나아갈 수 있었다고요. 하지만 그들이 내어준 용기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던 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저였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뽐어보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이유조차 다양하겠죠. 저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강제로 잡아끌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제 발로 찾아와 답답함을 토로한다면, 힘들고 어려움을 털어놓는다면 기꺼이 손을 잡고 나아갈 것입니다. 혹시 자신의 이야기가 음울해서 걱정된다거나 거드름 피우는 것 같아 망설여진다면 고민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착각이 하나 있는데요. 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고민하며 마치 제 일 인양 끌어안으면 어떻게 하지 생각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달콤하지 않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일까지 끌어안고 살기엔 우리의 삶은 너무 바쁘고 벅차니까요. 내가 이야기를 던질 때는 볼링공 무게였던 것이 상대가 받아내고 담아갈 땐 테니스공이 되는 게 현실의 모습입니다. 무거운 볼링공을 던졌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상대는

테니스공을 바닥에 통통 튀기며 제 갈 길을 갈 테니.

마음을 다잡고 간절하게 다른 이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결정과 책임은 오롯이 나의 몫입니다. 누군가에게 판단과 결정을 의지해선 안 되죠. 그들은 나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주체적으로 살고 싶은 이들은 이야기 중간에 다른 이의 첨언과 수정으로 얼룩진 페이지를 마주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비록 하나의 짧은 목차를 채우더라도 스스로 써보기를 바랍니다. 문장력이 서툴면 어쩔고, 내용이 부족하면 좀 어때요.

저는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열려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전 세대의 이야기를 담아 사회에 공유하는 이야기 플랫폼 ‘이야기브릿지’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이야기의 가치를 또렷하게 보고,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만으로 당신의 삶을 조금 더 빛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끝으로 여러분의 빛나는 일상을 응원합니다.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삽니다. ♪



김경한 이야기 기획자

텡그리와 부르한 3

다시 최남선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최남선에 의하면, 텡그리는 북방민족의 영향 아래 중국에서도 여러 형태로 등장한다고 주장한다. 최남선은 우선 중국 오악(五嶽) 신앙의 핵심인 태산도 텡그리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한다. 태산의 태(泰)가 고대에는 대(岱)로 쓰였는데, 그것은 대갈을 한문식으로 축약한 것이라고 한다. 사람들의 머리를 대가리라고 하는데, 대가리는 텡그리를 뜻한다. 사람 몸 중에서 대가리가 가장 하늘과 가깝기 때문이다. 태산은 대갈산 또는 대가리산으로서 그 뜻은 텡그리산이라는 말이다.

태산의 주신인 '부군'(府君)도 부르한 또는 발칸의 중국식 표현인데, 다만 부군은 태산의 주신을 나타낼 때만 쓰일 뿐 그밖에 중국 어디에서도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일상생활 속에서 부군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랜 유교 전통 속에서도 밝 사상의 흐름이 남아 있는 증거일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는 대부분 지방이라는 것을 쓰는데 여기에 반드시 '부군신위'를 집어 넣고 있다. 현고학생부군신위(顯考學生府君神位) 등등.

몇 년 전에 중국 태산에 오른 적이 있다. 태산은 진시황과 한무제가 봉선(封禪)의식을 거행한 곳이다.



태산 남천문

〈사기정의〉에는 '태산 꼭대기에 흙으로 단을 쌓아 하늘에 제사하고 하늘의 공(功)에 보답하는 것이 봉(封)이며, 그 태산 아래에 있는 작은 산의 땅을 평평하게 골라 땅의 공에 보답하는 것을 선(禪)이라고 한다'고 적혀 있다.



태호 복희



소호 금천씨

진시황제는 서기전 219년에 봉선의식을 거행하려 했으나 오랫동안 봉선의식을 거행하지 않아 아무도 봉선의 방법을 몰랐다고 한다. 시황제는 고유의 제천 의식에 맞춰 태산에서 먼저 봉례(封禮)를 행한 다음 양부에서 선례(禪禮)를 행하는 방식으로 봉선의식을 거행했다고 한다.

태산은 진시황이 봉선의식을 거행하기 전에 이미 72인의 제왕이 이곳에서 봉선의식을 거행했다고 하니, 텡그리를 숭배하는 신성한 산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매우 오래되었을 것이다. 공자 역시 태산에 올라 제를 지냈다고 하는데, 태산은 후대에 중국 도교의 본산처럼 되었다. 내가 태산에 올랐을 때는 도교 본당이 향불 연기로 자욱하고 냄새가 지독하여 전혀 신성한 느낌을 받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고대부터 태산은 하늘의 산으로 신성시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도 텡그리산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일본에도 밝산이나 대갈 텡그리의 흔적이 많다고 한다. 일본 고대의 신성한 산 천구(天狗)는 일본 발음으로 덴구라 하는데, 이는 텡그리의 일본어형이라는 것이다. 또한 일본 신격에 붙는 ‘히코’라는 용어는 ‘밝’의 일본어 형태라는 것이다.

최남선에 의하면 금강산도 원래 대갈산 또는 대가리산이었다고 한다. 대갈이나 대가리는 텡그리와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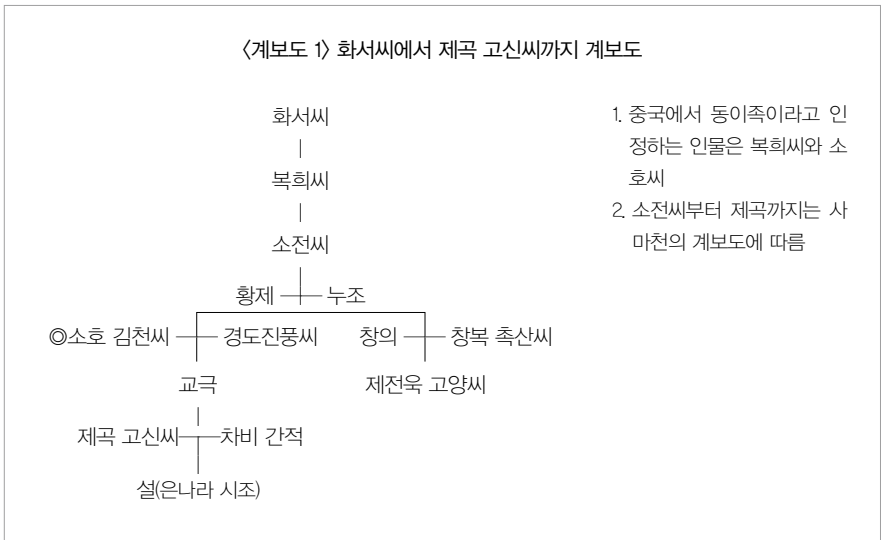
은 말로서 천신을 뜻하는 말인데, 후세에는 인격화되어 대감으로 남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한 방증으로 경주의 토함산도 원래는 대갈산 또는 대감산이었다는 것이다.

최남선은 밝과 텡그리에 관련된 여러 사실들을 많이도 수집하여 이야기하고 있으나, 우선 중국 신화시대의 태호복희(太昊伏羲)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기로 하자.

‘최남선은 중국 고대문화의 첫 창조자였던 복희나 신농은 황(皇)으로 보고, 첫 정치적 지배자였던 요순을 제(帝)로 보면서 이들 모두 태양의 덕을 갖춘 밝의 대신격(大神格)으로 보았다. 복희는 동방에서 나왔고 봄을 관장하여 태양의 광명을 형상하였으며 8괘를 그어 점의 시초가 되는 등 어느 것이나 밝적인 연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제호(帝號)를 태호라 하여 대갈 및 텡그리와 일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태호는 발음도 발음이지만 ‘큰 하늘’이라는 뜻이다. 이처럼 태호복희는 대갈과 밝의 두 전형적 칭호를 함께 갖추고



복희와 여와



좌 『신주사기』 1. '오제본기'에는 황제의 계보가 실려 있다. 우 『신주사기』 1에 실린 계보도.

있는 '대갈밭'으로서 단군의 중국적 변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라도 사투리로 대가리를 대그뺨이라 하는데, 이 대그뺨이라는 사투리도 혹시 대갈밭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모르겠다. 충청도에서도 대그뺨을 대갈박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최남선에 의하면, 태호복희는 염제신농과 더불어 3황으로 알려져 있고, 요순우 등은 5제로 알려져 있는데, 황은 밝계의 존칭이고 제는 텡그리 계통의 존칭이라는 것이다. 황은 뜻 자체가 빛날 황으로서 태양과 대지를 나타내거나 태양과 제단을 나타내는 것이고, 제는 천자(天子)나 천의 대표자로서 단군과 같은 지위인데, 천(天)의 중국 발음도 텐이어서 뜻뿐만 아니라 발음도 텡그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삼황오제에 대한 설은 부분하나 <십팔사략>에 나오는 삼황은 태호 복희, 염제 신농, 황제 현원을 말한다. 삼황은 인류 문명에 필요한 획기적인 발명을 통해 후세에 큰 모범이 되었기에 삼황으로 불리게 되었을 것이다. 삼황 중 염제 신농과 황제 현원은 중국 하북성 장가구에 있는 중화삼조당(中華三祖堂)에 모셔져 있다. 중국은 원래 황제를 국조로 받들었는데, 동이족을 위해 염제도 국조로 모셨고, 나중에 중국은

남성이나 귀주성에 살고 있는 묘족 등을 위해 치우도 국조로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치우는 본래 동이족이었지만 황제에게 패해 중국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묘족 등의 시조로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그런데 중국인들도 동이족으로 인정하는 태호 복희와 소호 금천씨는, 사마천의 <사기>에 황제의 조부이자 아들로 나온다. 황제가 복희의 손자이자 소호의 아버지라면 황제 역시 당연히 동이족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에 텡그리나 밝사상이 자리를 잡게 된 것은 중국 신화시대부터 동이족의 역할이 매우 컸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



김상윤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윤상원기념사업회 고문

사라질 위기에 놓인 건축유산

가치가 있는 건축유산의 운명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등록된 건물로 지속적인 보호를 받는다. 다른 하나는 그 가치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문화재라는 보호 울타리 밖에 있는 대상으로 주변의 환경 변화와 그 운명을 같이 한다. 문화재는 가치 점수가 100점, 문화재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대상은 경제논리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언제든 철거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낙제점은 아니다.

지난 2009년도 수피아여자중학교 내에 있는 윈스브로우홀은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까닭에 살아남아서 현재까지 잘 보존되고 있지만, 바로 옆에 있었던 다른 건물은 새로운 교사의 신축으로 철거되어 버렸다. 이렇게 된다면 가치의 정의는 문화재냐? 문화재가 아니냐?로 전락하고, 결국 가치 판단의 결과는 보존이냐? 철거냐? 라는 이분법적인 논리로 접근하게 된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광주의 재개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놓인 가치 있는 건축물이 있다. 광주 최초의 연립주택이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윤상원열사가 거주하면서 들불야학을 일으켰던 광주 서구 광천동 소재 '광주시민아파트', 5·18 당시 부상 시민군에게 수혈을 하던 장소이자 광주시민이 대거 헌혈에 참여했던 광주

동구 불로동의 '광주적십자병원' 등이다. 적십자병원은 5·18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어 보호받고 있으나 방치되어 있는 관계로 날로 퇴락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지만,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어 철거가 유보되었거나, 철회되었던 사례도 있다. 광주 동구 동명동에 있는 '동구인문학당'은 철거나 보존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었던 건물이었지만 동네에 거주하는 한옥 목수, 보존의 목소리를 냈던 건축 전문가들 그리고 동구청의 노력으로 살아나게 된 모범적인 사례이다. 반세기 동안 주택으로 사용되었던 동구인문학당은 한국, 일본, 서양의 건축양식이 모두 적용된 독특한 건축물이다. 양림동은 광주의 근대건축유산이 집중되어 있는 장소이다. 현재는 보호받는 건축유산이 많지만, 한때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않은 건축물은 가치가 없다는 이분법적인 논리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나 주민과 남구청의 노력으로 살아남은 중요한 사례이다.

건축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장치와 절차는 다양하다. 예를 들면 '지정문화재 제도'와 '등록문화재 제도'가 있다. 건축유산의 가치 판단에 있어서 상하의 등급 또는 기준이 아니지만, 보존과 관리의 주체를

기준으로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문화재’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 시도문화재’로 구분된다. 여기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를 제정하여 보존하기도 한다.

2001년부터는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하여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도 관심을 표명했다. 2019년부터는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등록문화재의 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관계로 등록문화재도 지정문화재와 마찬가지로 국가등록문화재와 시도등록문화재로 나누어 제도를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23년 7월 18일에는 국가유산 체제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정비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4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본격 시행된다.

문화재의 지정 및 등록을 위해서는 특정 건축유산의 보존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문화재 지정 및 등록신청서가 적절한 양식과 내용으로 정리되어 제출되면 문화재위원회 및 전문가의 가치 판단을 통해 선택적으로 제도권에서 보호를 받는 문화재가 되므로, 건축유산을 대하는 의식과 이를 보존하기 위한 시민과 해당 지자체의 의지도 필요하다. 다만 재산권의 행사 의지가 비교적 없는 공공재산의 경우에는 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되어 보존받을 수 있는 길이 비교적 쉽게 열리지만, 개인 재산의 경우에는 경제논리에 의해 사라지는 사례도 많으므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보존과 관련된 가치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등재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탁월하면서 보편적인 가치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 평가 기준이다. 문화재가 되기 위한 조건은 크게 4가지인데, 첫째 ‘역사에 기쁨이 되거나 상징적인 가치가 큰 것’, ‘특정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되거나 가치가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 ‘특별한 기술이 들어가고 흔하

지 않은 것으로 예술적인 가치가 큰 것’, ‘당시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 등이다.

위에서 언급한 문화재의 지정과 등록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다시 정리하면, 많이 알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동명동의 ‘동구인문학당’의 사례에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동구인문학당은 철거 또는 보존의 이슈가 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공개되거나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아직 문화재라는 보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시민과 전문가들의 활발한 활동과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유산을 살릴 수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개발 논리에 의해 조용히 철거되고 있는 건축유산이 많다. 그나마 성숙한 문화 시민이 많은 광주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철거의 위기를 넘겨 보호받는 유산들이 하나둘 생겨나지만 없어져 버렸거나, 철거를 앞둔 유산들은 부지기수이다.

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될 경우, 일대의 재개발 추진이나 공사일정 관리에 큰 영향을 주므로 관련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문화재 분포 현황 등이 충분히 검토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도시개발 방식은 민간 주도의 대규모 개발이 많다 보니, 개발 예정지 내에 지킬만한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건축유산의 존재를 알고도 밖으로 드러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적으로는 대전 동구의 철도관사촌, 경기 부평의 미쓰비시 노동자사택, 대구 명륜지구의 인쇄골목과 그 안에 있는 독립운동가의 생가, 광주 북구의 일신 전남방직 등, 재개발에 의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보호받지 못하는 건축유산, 산업유산들이 많으므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보존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건축유산, 광의의 개념인 문화유산은 개인과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가구성원의 결집력을 조성하는 기반이 된다. 이는 각 지역의 특수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우리 광주에도 그대로 적용된



광주적십자병원. 출처 : 의학신문



일신전남방직. 출처 : 2021년 본인 촬영

다. 전남도청과 5·18 사적, 무등산의 자연유산과 일대의 문화유산, 신창동 유적, 양림동의 선교유적, 충효동의 도요지, 가사문학과 누정, 광주 시내의 근대 교육기관 및 산업유산 등 무수히 많이 산재한다.

건축유산을 보존하고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일이 중요한 줄 알면서도 실패하거나 간과하는 주된 이유는 경제논리와 이를 수반하는 현실을 너무도 정확하게 적시한다는 것이다. 재개발을 통해 축적할 수 있는 부동산의 재산 가치가 너무나도 큰 우리나라에서는 당장 건축유산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개발에 해가 될 수 있는 잠재 자원을 돌볼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재개발을 통해 철거된 사례는 수기동 대우전기, 충장로5가의 조흥은행 충장지점, 동명동 계림극장, 송정동 송정극장, 수기동 김현수가옥, 장동 김유성가옥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건축유산의 보존과 관리는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광주광역시에서도 근대건축물 기록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기록화해야 할 건축유산, 등록문화재 현황을 비롯하여 철거되어버린 대상까지 파악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기록화를 위한 예산을 마련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범위와 예산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재는 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더라도 단지 보존만 한다면 누구를 위한 보존인지 부정적인 의문을 갖게 된다. 따라서 문화재의 보존은 필히 활용과 더불어 추진되어야 한다. 수명을 다한 건축물을 어렵게 살려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것은 예산의 부담만 지속될 뿐이다.

동명동 동구인문학당, 학동 마을사랑채 등 생존하여 재탄생한 건축유산이 있는 반면, 경제논리에 의해 철거되어버린 추억의 건축물도 많다. 가치있는 건축유산의 운명이 바뀌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도 무수히 경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건축유산을 대하는 시민들의 깨어있는 시선, 둘째는 가치있는 대상은 언제든지 보존하고, 계획의 변경을 감내하면서 공생할 수 있는 탄력을 지닌 행정력, 셋째는 잠재적 가치가 있는 건축유산을 발굴하고, 이들의 가치를 찾아내어 공론화할 수 있는 전문가의 능력과 언론의 관심이다. ♪



신영주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수리기술전문위원

광주관광공사의 방향과 과제

광주는 관광분야 발전이 뒤처져 있다. 전국 관역지 자체 중 1, 2위를 다투는 상태이고 노잰도시라는 닌네임을 얻을 정도로 발전이 없는 상태다. 물론 모든 지역이 관광을 발전시킬 필요도 없고 관광도시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도시의 다양한 분야에서 관광은 경제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시민복지를 달성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지금과 같은 상태를 유지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렇듯 광주관광의 발전속도가 느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관광에 대한 관심도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이로 인한 예산배정이나 투자가 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던 탓이다. 공공적 측면도 그러하거니와 민간영역에서의 역량 또한 축적될 겨를도 기회도 없었다.

그래서 관광분야 전체를 통합하고 광주관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진 것이 재단의 시작이었다. 재단출범 후 관광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많은 일들이 재단을 통해 수행되어 관광분야의 갈증을 해소시킨 성과를 거두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사실 여러 종류의 설립 가능한 조직유형 중 처음에는 공사를 검토했었으나 수익용 재산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아쉽지만 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된 바 있다. 공익사업 수행

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 기업체의 하나인 공사는 설립주체가 전액 출자하는 공법인으로서, 설립주체의 감독을 받으며 공과금이 면제된다. 따라서 강력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고 각종 사업을 통해 재정자립도를 확보할 수 있다. 반면 재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된 재산의 집단에 법적 인격이 부여된 법인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반면 통제력이 취약한 특성이 있다.

광주의 여건을 감안할 때 사실 조직의 형태와 무관하게 문제가 생기지 않겠지만, 마침 광주시의 공공기관 구조혁신이라는 상황과 맞물려 초기에 검토했던 공사로 가게 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광주관광공사는 광주 관광산업 전·후방 선순환 체계 및 관광도시 선포에 따른 추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수익사업 체계 개편을 통한 재정자립 수준이 강화되고 관광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켜본 바에 따르면 광주관광재단이 광주시의 관광관련 부서가 가진 실무를 대행하는 조직으로서의 기능은 무난히 잘 수행해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다만 재단이라는 한계로 인한 수익성 사업의 독자적 진행이 어려워 장기적으로 재정자립도를 키워나가는 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광주시의 유사 조직과 마찬가지로

로 보조금 사업이나 위탁사업에 의존하고 결과적으로 시의 모든 잡다한 업무를 떠안는 조직으로 전략할 위험을 안고 있었다. 또 여전히 광주관광에서 아쉬운 부분은 컨트롤 타워의 부재라는 사실이다. 정책적 컨트롤 타워는 광주시 신활력본부가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해나가고 있지만 의사결정의 독선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광주 관광 전체의 컨트롤 타워라기에는 무리가 있다. 게다가 두 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극히 형식적이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광주관광에서 필요한 것은 민·관·학·연이 통합되어 실무와 의사결정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독립성이 강한 조직이고, 이를 통해 변화가 심한 관광 환경에 유기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광주관광공사의 출범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여건들을 단계적으로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공사로 전환되면서 시의 통제력이 강화된 부분은 양날의 검과 같다. 강력한 집행력을 얻게 되지만 역으로 관에 의한, 관을 위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이는 시대의 흐름과 역행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부득이한 부분은 통제력이 필요하겠지만 최대한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가장 선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이 투명해야 할 것이다. 두 차례의 관광재단 대표 선정에서도 깜깜이 위원회, 정치적 안배 등 부정적 의견이 있었던 것은 위원회 구성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으며, 관광전문가가 아닌 분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이 그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재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3년 단위의 사장선출이나 임기 연장 등 앞으로 정기적으로 반복될 과정에서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조직의 인력이 늘어나야 할 것이다. 재단과 달리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을 병행해야 하고 김대중

컨벤션센터까지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두 조직의 인적자원만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통합과 변화의 의미를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과도한 직원들의 업무량만 가중시키는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에 의존해 직무 부담을 줄여나가야 하겠지만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 최소한의 정규직은 확보되어야 하고, 새로운 전문가의 영입을 통해 조직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수익사업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공사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사의 재정을 튼튼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의 지속적인 출자로 조직이 운영되는 것까지는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큰 부담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수익사업을 통해 자체적이고 추가적인 수입 발생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통합이나 조직형태의 변화는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다섯째, 광주관광 전반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 등을 통해 DB를 구축하고 공유하는 한편 전반적인 방향 재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어떤 분야든 발전에는 기초적인 부분과 절차가 있다. 앞서가는 아이디어와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기본에 충실하지 않고서는 영원히 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소수에 의해 공유되고 소수만이 알고 있는 상태는 폐쇄성과 의사결정의 독선을 초래할 뿐이다. 모든 시민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관심도와 참여도를 높이는 것은 발전의 시작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람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이번 관광공사의 출범과 더불어 '함께하는 광주관광'의 초석을 다지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박종찬 광주대학교 교수

“9월 광주는 세계 디자인축제 한마당”

광주시·디자인진흥원, 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9월 7일 개막

비엔날레전시관 등 시내일원...주제전·특별전 등 전시·행사 열려

어린이 체험·이벤트, 아트 페스티벌 등 즐길거리도 '풍성'

광주광역시와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오는 9월 7일 개막, 11월 7일까지 62일간 비엔날레전시관을 비롯해 광주 시내 일원에서 열린다.

지난 2005년 창설된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올해 10회 행사로 이어지며, 세계 40여 개국이 참여하는 등 세계적인 종합 디자인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 100% 대면 행사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홍익대 나 건 교수가 총감독을 맡았다. 행사는 'Meet Design(디자인을 만나다)'를 주제로, 예술과 차별화된 디자인과의 만남, 글로벌 트렌드와의 만남, 기술·문화 등과 디자인의 만남, 비즈니스와의 만남 등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표현할 계획이다.



디자인비엔날레 포스터

주요 프로그램은 △본전시(주제전) △특별전 △연계·기념전 등 다양한 디자인 전시를 비롯해 △국제학술행사 △디자인 체험·교육 △시민참여 프로그램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구성된다.



올해 본전시에서 공개될 'Design Meets K-POP' 연출 사진

4개 테마의 본전시

광주비엔날레관에서 열리는 주제전은 국내외 디자이너,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Technology(테크놀로지) △Lifestyle(라이프스타일) △Culture(컬처) △Business(비즈니스) 등 4개의 테마로 꾸며진다.

테크놀로지관(1관)은 LG,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뉴로메카 등 주요기업, 디자이너들이 참여한 가운데 AI(인공지능), 로봇, 스마트 등 첨단기술이 디자인을 만나 꿈꾸던 미래를 실현하는 미래 디자인을 전시한다. 라이프스타일관(2관)은 일상 생활 속의 디자인과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컬처관(3관)은 문화와 디자인이 그리는 K-Culture, K-Design을 선보인다. 비즈니스관(4관)은 디자인경영으로 성공 신화를 이룬 삼성전자, 다이슨 등 글로벌 기업의 혁신적 디자인을 만나볼 수 있다.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특별전도 마련된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생태미술프로젝트'를 주제로 중외공원 숲 등에서 수집한 소재를 바탕으로 작가, 디자이너 등이 협업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작품으로 전시, 자연 생태와 인간 공존의 새로운 관계를 제시할 계획이다.

행사 기간 동안 세계 30여 개 국가의 디자이너 350여 명이 참여하는 국제포스터디자인 초대전이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열리고, 광주디자인진흥원에서는 광주·전남지역 디자이너, 대학생 200여 명이 참여해 'Design Nexus(디자인 결합) 호남디자인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호남 디자인의 현재와 미래 디자인을 선보인다.

9월 7일부터 3일간 비엔날레관 3관에서 열리는 국제학술행사는 피터 쟁(독일 레드닷 회장), 권영걸(국가건축정책위원장), 나카지마 주리(일본 도카이대 교



2021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광주신세계백화점에서 열리고 있는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팝업전시관



올해 본전시에서 공개될 로봇 디자인 이미지

수), 권은숙 (미국 조지아공과대 교수), 김난도(서울대 교수) 등 국내외 석학들이 참여한 가운데 디자인의 가치 (Value), 트렌드 (Trend), 미래 (Future)를 테마로 담론의 장을 마련한다.


디자인 체험 및 참여 이벤트

이 밖에도 시민들이 다양한 디자인을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로 준비하고 있다. 7월 19일부터 9월 3일까지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 문화광장에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팝업전시관을 마련, 시민들과 만남에 들어갔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디자인비엔날레를 경험하고 전시관에서 체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로 즐기는 디자인비엔날레’를 비롯해 ‘나는야 리틀큐레이터’, 어린이 디자인 교육프로그램, 디자이너와 함께하는 디자인 워크숍, 시민들과 함께 꾸미는 아트 페스티벌 등이 열린다.

디자인 스팟(연계·기념전)

이밖에 동구미로센터에서는 공예디자인을 통하여 문화적 결혼을 제안하는 ‘순수의 결합_공예로 인연을 만나다’가 열리고, 조선대학교 장항남정보통신박물관에서는 정보화시대에 통신, TV 등 디바이스 발전사를 볼 수 있는 ‘Re : 제3의 물결’, 서남동 인쇄비즈니

스센터에서는 인쇄·출판 디자인의 과거와 현재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연계·기념 전시가 광주 곳곳에서 다채롭게 이어진다. 또, 양림동 일대의 갤러리와 숨겨진 정원을 도슨트, 가이드와 함께 탐방하는 ‘양림 예술정원 여행’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올해로 10회를 맞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통하여 ‘더 나은’ 삶,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디자인의 가치와 역할을 제시하고,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 놀거리가 있는 ‘오감만족’ 행사로 준비할 계획이다. 

2023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

- 행사 이모저모 & 시민작가 참여후기

위기의 시대에 집단지성에게 길을 묻고 시민들과 함께 답을 찾아가기 위해 마련된 인문예술축제 '2023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 시민들과 함께한 그 날의 현장을 사진으로 만나보고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시민들의 소감을 들어본다.

강승화(김종웅 김아정 김여은 김우준)

5·18에 대해 애들과 더 많은 기록을 보고 이야기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5·18과 우리 애들이 생각하는 5·18이 많이 다른듯 합니다. 역사왜곡이 안되길 바라며 후세대도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경화(김영환 김세연 김다연)

아이가 아직 어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참여하면서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서 가족 모두가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좋았습니다.

김서궁(이혜림 김경훈 김이현)

자녀들이 어려 행사에 참여하면서도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른의 생각보다 훨씬 더 사고가 깊고 우리의 역사에 대해 이해하려는 의지가 많았습니다. 행사에 어린 자

녀들과 참여하여 평소에는 나누기 어려웠던 민주주의를 위한 값진 희생과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역사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면서 책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에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이 역사를 잊지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나아가는 힘을 얻습니다.

김윤덕(김유나 김레나)

민주화만을 바라보고 열망했던 수 많은 희생자들의 정신이 모여 일궈낸 민주화 운동을, 광주를 알지 못하는 우리 두 딸에게 들려주고 싶어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의 오월을 이해하고 광주 시민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광주의 진실을 바로 알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박은순(김한결 김해솔 김예솔)

3년째 참여중인데 아이들과 항상 뜻 깊은 경험하고 있어요. 내년에도 꼭 참여 할꺼예요.

이동희(정민지 이건호 이진호)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잊지 않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봉진(김윤아 전해인 전해민)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는 5·18광장이 민주주의 상징으로 불리기까지 일어난 여러 상황들과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사실들을 그림, 춤, 이야기 등으로 표현하는 것 같다.

릴레이 드로잉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3년 동안 시민작가로 참여해 오면서 광주 5·18이 가진 깊은 의미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정민식(유리 정상진 정유진)

사랑하는 아내, 7살 아들, 4살 딸과 함께 참여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오월정신 릴레이 드로잉을 신청했습니다. 생각 이상의 큰 규모의 행사에 놀랐으며, 행사를 준비 및 운영해주신 친절한 운영진 및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추상적인 그림이 나오긴 했지만 가족들과 함께 오월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뜻깊은 행사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면 다시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유담(황인섭 황혜슬 황유슬 황성후)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위해 우리는 미래 세대에 게 늘 과거를 재인식하고, 현재를 함께 점검해봐야 한다. 이것이 깨어있는 시민이 짊어진 의무이다.

이렇게 가족이 함께 그림을 완성함으로 의식을 공유하고 또 그 변화된 흐름들도 공유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황지민(박서진 박서윤)

본 행사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볼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

위대하거나 아름다운 것들의 교감

- 스위스 도시 여행

여행은 힘과 사랑을/그대에게 돌려준다. 어디
든 갈 곳이 없다면

마음의 길을 따라 걸어가 보라./그 길은 빛이
쏟아지는 통로처럼

걸음마다 변화하는 세계./그곳을 여행할 때
그대는 변화하리라.

- 여행 <질랄루딘 루미(1207~1273) 회교 신비주의 시인>

필자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 12박 13일 일정으로 “니체의 사유의 길”을 따라 인문철학반 “몽클래스” 회원들과 서유럽 5개국(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바티칸)을 답사했다. 이번 여정의 중반 무렵 스위스와 이탈리아 도시에서 위대하고 아름다웠던 풍경과의 교감을 나누어 기록해 본다.

스위스 취리히와 루체른

인문철학 답사팀 일행은 독일 전통 도시의 인문적 풍경과 쇼펜하우어, 하이데거, 니체와 괴테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얼음세포 같은 철학자들의 냉철한 음성을 마음에 새겼다. 독일과 프랑스의 속살을 체험한 일행은 동화와 눈의 나라 스위스 취리히로 향했다. 아름다운 취리히 호수와 리마트 강이 자아내는 목가적 풍경, 중세풍 건물들이 연출하는 고풍스러움을 두

루 갖춘 이 도시는 공과대학이 손꼽히고 유명한 연구소를 갖고 있다.

버스로 한 시간가량 이동해 도착한 취리히의 중앙역과 중심지인 반호프 거리를 지나 세계적 교육자 페스팔로치를 기리는 동상이 있는 도심 속 공원을 둘러본다. 리마트강을 가로지르는 뮌스터다리를 중심으로 도시 풍경은 유난히 조용하고 지붕의 색들이 갈색이 대부분이어서 눈에 들었다. 특히 막스베버의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의 분위기를 알려주는 성당과 교회가 세 곳이 있는데 857년 만들어졌다는 스위스에서 가장 오래된 장크트페터 교회에는 침탑에 유럽에서 가장 큰 시계 문자판이 있다. 일명 ‘성모 교회’로 불리는 프라우엔 뮌스터는 취리히를 대표하는 고딕 양식의 건축물로 성서의 이야기를 주제로 만들었다는데 샤갈의 스테인드글라스가 유명하다. 2개의 녹색 침탑이 멀리서도 눈에 띄는 그로스뮌스터는 ‘대성당’으로 불리며 취리히의 랜드마크다. 11세기부터 13세기 까지 200년에 가까운 시간을 거쳐 만들었다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이 교회는 ‘종교개혁의 어머니 교회’로도 불린다. 중세의 종교개혁가 츠빙글리가 1529년 임종할 때까지 이곳에서 설교를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성당 내부에는 1933년 자코메티가 제작한 화려한 스테인드글라스가 있어 더욱 유명하다. 미래를 예측

하고 지어졌다는 화려한 교회와 귀족들의 저택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색채와 풍경에 비해 우리들의 삶은 얼마나 불완전한지 현실로 문득 돌아오곤 했다.

윈스터 다리에서 리마트강을 따라가면 만나는 취리히 호수는 빙하가 흘러들어 지나치게 맑은 탓에 먹잇감이 없어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고 한다. 호수의 신비스러운 물빛을 바라보며 나약해진 의지와 노여움에 대해 생각했다. 더없이 가벼웠던 욕망들도 무디어짐을 느낀다. 니체는 이 호수와 숲에서 “생은 높이 오를 필요가 있다”를 생각했을까. ‘허물을 벗지 못한 뱀은 반드시 죽는다. 인간도 낡은 사고의 허물에 갇히면 성장은 커녕 안에서 썩기 시작해서 마침내 죽음에 이른다. 따라서 인간은 항상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 생각의 신진대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니체의 아침놀)’

카펠교(Chapel Bridge)는 스위스 루체른의 상징으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박공지붕에 루체른 수호성인의 그림을 볼 수 있는 중세 다리다. 길이는 약 200미터 이고 1333년에 놓였다는 이 다리는 야경이 특히 아름답다고 하지만 일행은 다리 건너편 저택에 핀 꽃들과 빛나는 광채를 가진 건축물을 배경으로 사진 찍기에 분주했다. 광장과 성벽, 미술관, 카페, 교회... 루체른 구시가지 건축물의 양식은 비현실적인 마법의 보석상자 같다. 정말 이런 건축물이 그때 가능했을까? 하지만 필자가 이 도시에서 가장 감동을 받았던 풍경은 숨을 거두어 가는 ‘빈사의 사자상’ 조각이었다. 수 백 년에 걸친 가난의 터널에서 용병을 보내 벌어들인 돈으로 연명했던 스위스의 아픈 과거를 덴마크의 조각가 토르 발센이 사암 절벽을 파 동굴을 만들고 창에 찢린 채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자상을 조각했다고 한다. 그래도 어미 사자는 떡 벌어진 어깨로 자존심을 지키며 어린 사자를 보호하고 있다. 마크 트웨인은 이 조각상을 보고 “지구에서 가장 슬프고 감동적인 조각상”이라고 말했다.

생모리츠에서 도시열차를 타고 흰 눈에 덮인 산정의 풍경과 구름을 보며 탄성을 지르던 기억은 아직도 생



위 스위스 생모리츠 열차 밖 풍경 아래 루체른의 상징 가펠교

생하다. 뻑뻑한 산림의 등뼈를 가로지르는 열차 안에서 그림 같은 풍경이 주는 기쁨은 살면서 느꼈던 분노와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것 같다. 어디쯤에서는 이 감동이 희미해 진다해도 자연이 깨닫게 하는 철학은 행복이었다. 산정을 향하는 돌로미티 길과 브라이어스 호수의 절실한 이미지들은 내게는 내면의 충격이었다. 그렇다. 훗날 여행에서 돌아와 내가 본 풍경들에 대해 당신을 납득시키기 어렵다 해도 나는 연신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그때의 생생한 추억을 떠올릴 것이다. ♪



김정희 시인, 재단 편집위원

문화공감_ 김옥열의 포토에세이

생선이 기가막혀

기가 막힐 일이
한 돌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저 생선들조차
저리 눈을 부릅뜨고
분노하는 걸까요 ♪
김옥열_ 사진작가





재단소식

[재단소식]

• 사업

2023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 개최



2023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 인물예술축제가 지난 6월 10일(토) 오후 6시~10시까지 5·18민주광장에서 '다시 민주주의'란 주제로 예술가,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2021년과 2022년에 이어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세계 지성이 광주를 말하다'는 위기에 시대 집단 지성에게 길을 묻고 시민들과 함께 해법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본 행사는 얼쑤, 굿패마루, 전통연희놀이연구소의 타악과 농악이 어우러진 <민주한마당>, 임재성 kbs시사직격 진행자와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가 참여한 <광주정신 토크쇼>, 최보결 안무가와 오월어머니들이 치유의 춤을 추며 평화의 메시지를 몸짓으로 표현하는 <대동의 춤>, 전문작가와 시민작가 100여 명이 참여하는 <오월정신 릴레이드로잉>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본 사업 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재단 유튜브로 송출되어 광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도 참여토록 하는 등 광장 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 사회의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열세 번째 지역문화교류마당 '자연과 미술-의재 허백련'

지난 7월 8일(토) 20여 명의 재단 회원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자연과 미술-의재 허백련(許百鍊)' 주제로 열 세번째 지역문화교류마당이 열렸다.해설이 있는 공간 및 전시 관람, 의재 허백련 화가의 그림과 생애를 통해 만나본 이선옥 의재미술관 관장의 인문강좌, '허백련 춘설헌' 현장 답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석자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한편, 열 세번째 진행되고 있는 지역문화교류마당은 도시를 풍성하게 만드는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을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는 문화프로그램으로 분기별로 진행하고 있다.

• 조직

'2023 회원 만남의 날' 열려



우리 재단 2023 회원한마당(치맥파티) 행사가 지난 6월 13일(화) BHC 에서 2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상반기 신규 임직원 환영 모임을 겸하여 진행된 이날 행사는 오형근 회장의 '주류' 특강, 참석한 회원 각자 MBTI 방식의 소개, 치맥 파티를 통해서 회원 상호간의 소통과 친목을 다지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또한 모임에서는 회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소모임을 하반기에 개설하여 운영키로 의견을 모았으며, 내년 부터는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다채로운 소모임을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재단 4차 임원회의 열려

재단 4차 정기 임원회의가 지난 8월 21일(월)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재단이 중점 추진해야할 주요 목적사업과 재단 주관 또는 간사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연



대 사업에 대한 점검과 재단의 역할에 대한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한편 재단 임원 조직 정비는 11월 하순 또는 12월 초 열리는 정기 이사회 및 전체 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논하되 임원회의 회람 및 사안에 따라선 승인을 전제로 필요한 실무조치는 사무처에 위임키로 하였다.

• 연대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어떻게 되어나! 포럼 개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활성화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이하 지원포럼) 공동 주최로 '옛 전남도청원형복원 어떻게 되어나!' 포럼이 지난 5월 25일(목) 오후 3시, 광주NGO센터 시민마루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옛 전남도청은 문화전당의 핵심 가치를 구현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복원과정 못지 않게 복원 이후에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여서, 지역적 관점에서 복원사업의 제언을 통해서 시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기여하고자 마련된 공론의 장이었다. 포럼 사회는 우리 재단의 이기훈 상임이사가, 박영만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추진단 학예연구관이 주제발표를 하고 김기곤 광주 전남연구원총괄지원관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어서 홍성철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범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정성구

지원포럼 문화도시환경분과장,이현미 광주민예총 부회장이 각각 패널로 참여했다.

민선 8기 1년 문화정책(행정) 평가 포럼 열려



'민선 8기 문화도시 길을 묻고 답을 구하다'란 주제로 광주문도협, 광주민예총, 상상넷이 공동 주최하고 우리 재단이 주관한 포럼이 행정, 기관, 문화예술인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7월 5일(수) 15시, 광주ngo센터 시민마루에서 열렸다. 1부는 '민선 8기 1년 문화정책(행정)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문화행정 혁신, 예술인 권리조례 제정 이후 과제, 문화예술 보조금 사업 개선 과제, 아문도시조성사업 정착을 위한 광주시 역할을 중심으로 토론이 전개되었으며, 이어서 2부는 현장의 문화예술인과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의 지속가능한 예술 생태계,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 문화정책, 청년문화정책, 문화행정 혁신 등을 중심으로 문답식 토크로 진행되었다. 이번 포럼은 민선 8기 출범 1년을 맞아, 민관이 광주시 문화정책을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해보는 의미도 있었지만 특히 현장의 문화예술인과 광주시 문화정책(행정)을 총괄하는 부시장 및 주요 공직자가 함께 예술인이 존중받고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광주를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보는 첫번째 만남이었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전일방 부지 공공기여 어디까지 왔나' 릴레이 토론회 열려

'전일방 부지 공공기여 어디까지 왔나' 주제로 광주시의회, 전일방공공성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재단 간사단체), 전일방개발 주민협의체공동주최로 행정, 시민사회단체,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8월 16일(수) 14시, 광주시의회 대회 의실에서 열렸다. 전일방 부지의 사업계획 조정 및 토지 감정평가 완료 이후에 공공기여량 산정에 관한 광주시협상조정협의회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열린 이번 토론회는, 시민의 편의성과 공간의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협상전제조

재단·회원소식



건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정책에 반영코자 마련되었다. 사회는 안평환 시의원이 맡았으며, 발제는 박흥근 건축사와 조진상 동신대학교 교수, 이어서 정성구 도시콘텐츠연구소 대표, 함인선 광주시 총괄 건축가,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선진 주민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편, 우리 재단은 시민대책위 간사단체를 맡아서 전일방 부지의 시민의 편의성과 공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회원소식]

“회원님들의 소식을 받습니다”
회원님들의 기쁘고 축하할만한 소식을
『창』에 신고자 하오니 많은 연락 바랍니다.

김옥열 이사(푸른꿈후원회 회장), ‘푸른꿈후원회, 학과 후배들에게 장학금 전달’



17일 전남대 신방과 푸른꿈후원회(회장 김옥열)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9팀의 신청을 받아 이중 3팀에게 장학금을 지급, 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선정된 학생들은 자신들이 희망하는 진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나 그 결

과를 책자로 발간하고, 혼자만의 바다여행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나만의 에세이 책을 만들며, 음성적 혈액 구매 문제를 다룬 단편영화를 제작하게 된다.

- <전남일보> 발췌

김병희 운영위원(강진군 지역문화활력촉진 사업단장), 강진군 지역문화활력촉진사업단 ‘문소리’ 발대식 개최



전라남도 강진군 지역문화활력촉진사업단이 14일 ‘청년샐’에서 문화활력 활동가 ‘문소리’의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문소리는 ‘지역문화에 활력을 더하는 소리’의 줄임말로 △기자단 △모니터링단 △문화기획단 총 3개의 분과 15명으로 구성되며 9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됐다.

문소리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각 분과별로 강진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SNS 콘텐츠 제작과 함께 문화행사 프로그램 및 공연 등을 모니터링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지역의 숨어있는 문제에 대해 문화적인 해결 방안을 기획하는 등 올해 11월까지 다양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 <스카이데일리> 발췌

류영국 이사(주.지오시티 대표),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 상생 콜로키움 개최’ 대표 토론 맡아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소장 나주몽)이 지난 14일 전남대 경영

대학 최상준홀에서 '2023년 제1차 광주전남 초광역협력 상생 콜로키움(이하 상생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상생 콜로키움은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를 포함한 7개 산업·학계 연구기관 등이 함께 광주·전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메가 시티(Mega City) 지역 형성 관련 대안 제시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시대 광주전남 초광역 상생협력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상생콜로키움은 김대성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박정연 전남농촌종합지원센터 본부장의 발제로 시작해 류한호 (사)정책공간포용혁신 회장이 좌장, 조준범 목포대 사회과학대학장, 류영국 (주)지오시티 대표이사가 대표 토론을 맡았다. 또 이상준 전남대 경영대학장 등 40여 명이 함께 했다.

- <광주일보> 발췌

노영기 기획위원(조선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광주시의회 5·18특위 첫 행보 '주요 사적지' 점검에 현장 해설 동행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위원장 정다은)는 26일 5·18국립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5·18 주요 사적지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2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5·18특위 소속 9명 전체의원이 참석한 이날 현장방문은 한국현대사와 5·18관련 서적을 다수 집필한 노영기 교수가 동행해 역사적 설명을 덧붙인 현장 해설을 이어갔다. 5·18특위는 망월동과 옛 전남도청 일원 상무지구 등에 산재해 있는 5·18 주요 사적지들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점검과 현황을 청취하는 한편 향후 활용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5·18사적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황을 청취해 향후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광주드림> 발췌

노성태 연구소장(남도역사연구원장) [기고] 정율성 역사공원 논란, 당장 멈추어야

광주시는, 정율성이 한 중 우의 인물로 주목받자 정율성을 중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역사자원, 나아가 한중 교류의 매

개체로 인식했고, 공원 건립은 20년 넘게 지속되어 온 정율성 사업의 연장이었다. 국가보훈부에서 촉발한 정율성 공원 폐지 논란에 정부 여당도 합세하고 있다. 광주를, 호남을 색깔론으로 고립시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총선전략이라면, 정말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는 낮은 전략이며 유감이다.

정율성 공원에 대한 논쟁, 당장 멈추어야 한다. 국민을 두 편으로 갈라치는 이런 논쟁은 대한민국의 오늘, 미래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정략적 의도마저 엿보인다. 지지체에 맡기면 된다. 광주시민에게 맡기면 된다. (기고문 일부 발췌)



- <무등일보> 발췌

윤만식 고문(사)한국민족극협회 고문) 한국탈을 주제로 한 전통과 현대의 만남전 열려
오는 9월 14일(목) 오후 6시, 오픈식을 시작으로 한국의 탈을 주제로 윤만식의 전통과 현대의 만남전이 9월 30일(토)까지 오월미술관에서 열린다.



“환영합니다”
<p>신규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단비(해금예술가) • 정충현(공무원)

함께하는 사람들



재단법인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임원현황

이사회

〈이사장〉

김덕진 광주교육대 사회교육과 교수

〈부이사장〉

김양균 전통문화연구회 얼썩 대표
박신영 국제PEN한국본부 광주지회장, 소설가
오형근 무등정책포럼 대표

〈상임이사〉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

〈이사〉

김대현 전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김 성 (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상임고문
김영주 (주)광주전남ICT협회 회장
김옥열 (주)다큐디자인 대표
김정희 시인
김하림 조선대 명예교수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부회장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
류영국 지오시티(주) 대표
박요주 세무사
박종찬 광주대 호텔관광경영학부 교수
서순복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양봉모 불교방송 총괄본부장
오건규 화가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
이승권 조선대 프랑어과 교수
이연수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철우 전남대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정현애 흥복학원 이사장
지형원 (사)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포럼 회장

〈감사〉

윤만식 (사)한국민족극협회 고문
최회용 세무사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김양균 전통문화연구회 얼썩 대표

〈부운영위원장〉

박홍근 포유건축사사무소 대표
주 흥 샌드애니메이션 작가

〈운영위원〉

구용기 사직문화보존시민모임 사무총장
김경한 이야기브릿지 대표
김기곤 광주전남연구원 광주총괄지원연구원
김병희 강진군 지역문화활력촉진 사업단장
김성환 서구청 문화정책 전문위원
김윤아 광주치매예방관리센터 센터장
김향득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김혜선 광주과학기술원 CT연구소 책임연구원
송지나 음악/공연기획 전문가
윤준혁 (주)지니엑스 대표
이상필 동신대 교수
정성구 (주)도시문화집단CS 대표
조인형 광주전남연구원 창의문화관광연구실장
진시영 미디어아트 작가
한 선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연구소 기획위원회

〈연구소장〉

노성태 남도역사연구원장

〈기획위원〉

김광욱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원중 전 지역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실장
노영기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류영국 지오시티(주) 대표
이향준 전남대 철학교육연구센터 연구원

후원이사회

〈후원회장〉

오형근 무등정책포럼 대표

〈부회장〉

이대성 (주)웹매직 대표

최형주 (사)5·18구속부상자회 이사

〈후원이사〉

고영주 부성포장 대표

국형렬 금호시스템 부장

김동규 준이앤씨(주) 대표

김병균 강토이앤씨 대표

김상집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성환 조선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용혁 (주)페르소나시 본부장

유병연 삼진종합건설 기술이사

이명란 시인, 문학전문 강사

정광민 서로 건축사무소 대표

황재익 (주)오스메딕 대표

재단사무처

이기훈 상임이사

이지호 사업팀장

김혜라 간사

편집위원회

〈위원장〉

김옥열 다크디자인 대표

〈편집위원〉

김정희 시인

김향득 다크멘터리 사진작가

정철웅 시인, 문학박사

고문

김상윤 윤상원기념사업회 고문

백수인 조선대 명예교수

후원회원 가입 안내

지역문화교류 패러다임의 견인차로서
작은 씨앗을 뿌린 지 어느 덧 18년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후원으로
플뿌리 시민문화재단의 가능성을 확인했던
우리 재단은 더 많은 인과 덕의 향기로
사람들이 절로 모여드는
사랑받는 문화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역문화발전의 소중한 자양분이 되고자 합니다.

회원구분

- 평생회원(100만 원 이상 후원회원)
- 유지회원(월 1만 원 이상, 1년 일시불 납부 가능)
- 후원계좌 : 광주은행 019-107-318262
- 예 금 주 :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 문 의 : 062-234-2727 /
이메일: r-cultural@hanmail.net
재단홈페이지(www.rccef.or.kr)에서도
회원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재단의 회원이 되시면,
회원으로서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리시고
후원해주신 희비는 연말소득공제혜택을 받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편집후기

다시 수상한 시절입니다. 이런 답답한 세상이 다시는 없을 줄 알았는데, 연일 북장터질 일만 가득하네요. 길고 긴 장마와 여름더위 보내고 좋은 계절인데 말입니다. 와중에 『창』 가을호가 나왔습니다. 우리 지역에선 항상 뜨겁고 뜨거운 감자 '오월'을 좀 다뤘습니다. 오월은 지났는데 심상찮은 오월의 진로가 걱정입니다. 은퇴후에도 인문광주를 위해 맹렬히 활동하는 원로철학자 성진기 전남대 명예교수님 인터뷰가 따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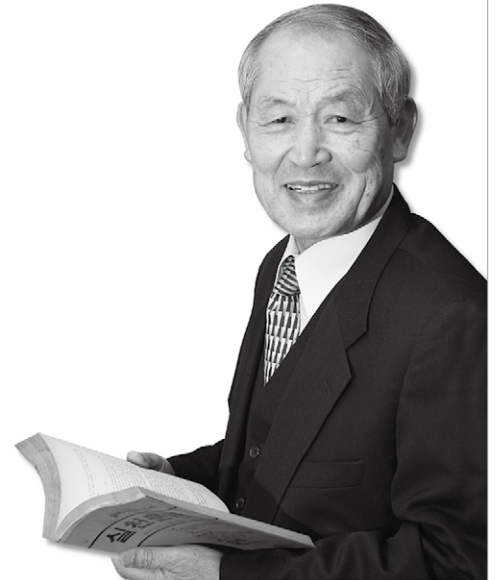
더운 여름날 옥고를 주신 많은 필진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겨울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 편집위원장



민족시인 문병란 선생 8주기 추모제

2023년 9월 23일(토) 오후 2시
국립5·18민주묘지



식순

민중의례

년도낭독

인사말

추모사

유족 인사

분향 및 헌화

주 관

광주전남추모연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이철규열사추모사업회



‘창’은 우리 겨레와 인류 문화를 보는 눈입니다.

열네 번째 지역문화교류마당

환대를 가득안고 만나는 고려인마을 안녕, 즈드라스트부이즈제

지역문화교류마당은 도시를 풍성하게 만드는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을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는 문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그리고 고려인 마을!

저서동(UCL도시문화연구소 대표)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약어선

고려인 문화관 '결' 관람
및 마을 투어



광산구 열곡동 고려인마을

중앙아시아 음식을 맛보는
식사 및 대화 나눔

고려가족사당

모집인원

선착순 20명, 참가비 2만원(회원 1만원) *식사 및 다과 제공

접수문의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사무국 ☎062-234-2727

2023 9.16(토) 14:00
광주 고려인마을 일대



“9월 광주에서
최고의 디자인을 경험하세요”

제10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MEET DESIGN 디자인을 만나다

9.07-11.07

비엔날레전시관 등 광주 시내 일원

주최 |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주관 |  **광주디자인진흥원**
GWANGJU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본전시

주제전

Main Exhibition

- TECHNOLOGY Meet Design** 비엔날레관
기술, 디자인을 만나 꿈꾸던 미래를 실현하다
- LIFESTYLE Meet Design** 비엔날레관
삶을 비추는 디자인, 일상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 CULTURE Meet Design** 비엔날레관
디자인이 함께 그려내는 K-Culture, K-Design
- BUSINESS Meet Design** 비엔날레관
새로운 비즈니스와 창조적 디자인 경영

특별전

Special
Exhibition

- 생태미술프로젝트** 광주시립미술관
자연 생태와 인간 공존의 새로운 관계 제시 8.23~12.31
- 국제 포스터디자인 초대전** 비엔날레관
9.7~11.7
- Design Nexus :** 광주디자인진흥원 전시장
호남디자인 오늘과 내일 9.14~10.14
- Design Meet People** 광주 신세계백화점
4명의 디자이너가 풀어내는 Meet Design 팝업전 7.19~9.3

국제

학술행사

International
academic event

- 개막 심포지엄 Opening Symposium** 비엔날레관
Design Meets Value, Trend, Future 9.7. AM 11:00
- 디자인 포럼 Design Forum** 9.8. PM 13:00
- 디자인 토크 Design Talk** 9.9. PM 13:00
- DBEW 포럼/DBEW Forum** 의재 미술관
10.10. PM 16:00

디자인 스팟

연계·기념전
외부 파빌리온

Design Spot
Pavilion

- Design Meet 활자활짝** 광주인쇄비즈센터
인쇄·출판 디자인의 과거와 현재를 조망 9.7~11.7
- Re: 제 3의 물결** 조선대 장항남정보통신박물관
TV, 통신 등 정보 디바이스 디자인의 변화 9.7~11.7
- 순수의 결합_ '공예' 인연을 만나다** 동구 미로센터
공예·디자인으로 문화적 결연을 제안 9.7~11.7
- 양림예술정원여행**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일대
10.4~11.5
- 대지의 소리를 귀담아 듣다** 한국천연염색박물관
8.28~10.7
- 사이언 - 사피엔스** 광주과학기술원 오룡아트홀
9.1~10.31

디자인

체험교육
프로그램

Design
Workshop

- Designer's Workshop** 비엔날레관
- 모모모 : 어린이 디자인 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 디자인비엔날레 in Metaverse** 비엔날레관
메타버스 플랫폼
- 더 리틀 큐레이터** 유아교육기관, 비엔날레관
- Meet & Play** 비엔날레 5관
북구 아트페스티벌 연계 시민참여형 전시

부대행사

Fringe Events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김대중컨벤션센터
9.19
- 디자인상품 전시 판매** 비엔날레관
9.7~11.7